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길을 잘 가르치고 전수하여 믿음의 가정을 보전하고 교회에서 사회에서나 믿음의 자녀들로 잘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능히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7년 6월 3일 (토) 제 1636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전 교회적 역량이 투입되는 VBS로!

2017년 여름성경학교 준비와 실제 그리고 마감까지...그 당위성 안내

한 조사기관에 의하면 미국 교회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교회가 매년 여름에 여름성경학교(VBS)를 주최한다. 참석 인원은 대략 3천9백만 명의 어린이들이다. 가히 엄청난 숫자다. 이 엄청난 숫자의 어린이들과 올 여름에는 어떤 여름성경학교를 할 것인가? 여름성경학교는 어린이 사역의 핵심이다. 그런데도 여름성경학교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들이 특히 미주 한인교회에서 들려온다. 그도 그럴 것이 4박5일씩 진행되던 일정이 3박4일로 줄더니 언젠가부터는 2박3일의 단기 코스로 바뀌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의 관심도 많이 줄어서 그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행사로서 더 이상 아이들의 식사준비를 위해 술단지 들고 따라가는 권사님들의 역적스러운 아이들 사랑을 보기가 힘들어졌다. 또한 여름방학을 맞아 아이들은 부모들의 협박성 강요(?)에 따

라 학원에서 하는 캠프나 방학을 이용한 특별 연수에는 참여해도 여름성경학교에는 별 매력을 못 느끼고 있다. 부서의 교사들 역시 이중삼중으로 휴가를 내 참여해야 하는 교회 내의 여러 캠프들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니, 학생부족에 교사부족, 예산부족에 장소부족이라는 사중고를 겪고 있다. 여름성경학교는 다음세대를 위한 전도의 통로로서 1870년부터 미국 교회와 전세계 교회에 기여해왔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시시해져가는 슬픈 현실 앞에 놓이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어릴 적에 뿌려진 믿음의 씨앗이 얼마나 능력 있게 열매 맺는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커다란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진정 이민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며 새로운 부흥을 꿈꾼다면 다음세대를 위한 복음과 전도의 통로로서 여름성경학교의 기능을 속히 회복하는데 전교회적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 [편집자주]

VBS를 위해 잠언 22장 6절은 이런 제안을 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능히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름성경학교는 단순히 어린이들에게 즐거움만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한다. 3일 혹은 4일 간의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 하는 것이 당연하도록 만들어 주자. 성인 대상의 제자 삼는 사역에 대한 '강조'는 언제나 있어왔지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만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명'을 어린이들에게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은 등한시 돼왔다. VBS를 통해 제자 삼는 사역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교육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의 VBS참여자가 미래의 선교사로 나설 하나님의 귀한 자원의 보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음세대를 위한 전도의 통로 VBS에 전 교회적 역량이 투입되어야 한다

요하다. VBS는 교사들뿐 아니라 학부모와 청소년, 대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교회의 연합과 한 가족됨을 확인하며 세대간 교육이 일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그런 의미에서 스태프 모집은 VBS의 성패를 가능할 수 있는 단계가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스테이션 별로 구성된 VBS 교재의 특수성과 주방 사역에 요구되는 인원들 때문에,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절실하다. 따라서 VBS를 통해 이전에는 한 번도 교회에서 교사로 봉사해보지 못한 이들이 교사로 헌신하게 하고, 은퇴해서 집에 계신 노년층 교인들에게도 기회가 되도록 준비하여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의 달란트를 사용해서 섬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어야 한다. 2. 자원봉사 지원서를 통해 모든 이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을 알게 하라. VBS의 홍보는 부서에 소속된 멤버와 그렇지 않은 멤버를 대상으로 하며, 이에 따라 교회 안과 밖의 홍보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실내용 실외에 부착하거나 나누어주는 정적인 방법의 홍보와 이벤트 등을 통해 행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동적인 방법이 있다. 다양한 경로의 홍보 방법을 통해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다.

<3면으로 계속>

교회의 방치가 못된 교인 만든다!

처치리더스.컴, 사우스이스턴 신학대학 전도/선교학 교수 척 로레스 목사의 못된 크리스천 존재 이유 소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나는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목회자든 전도사든, 내가 사역했던 대부분의 교회에는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나의 경험과는 달리, 어떤 교회의 경우 굉장히 못된 교인들을 마주할 때가 있기도 하다. 지난 몇 년간 우리가 시행한 인터뷰를 통해 얻은 사실이 있는데, 교회 내에 간혹 있는 못된 기독교인들에 대한 조사를 소개한다(8 Reasons Some Church Members Are Mean).

1. 모든 교인들도 결국 사람이다. 물론 이 명분이 개인의 못되고 약한 성품을 정당화시키지 못한다. 그저 현실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들, 회심한 사람들도 그들에게 민감한 상황이 닥치면 죄인의 모습을 다시 표출할 수 있다.
2. 어떤 성도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다. 예수님 또한 12명의 제자들 중 그를 믿지 않은 한 명의 제자가 있지 않았는가?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나를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성도들은 결국 그 본색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들 스스로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다.
3.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직 훈련되지 않았다. 많은 교회들이 교인의 수를 증가시키는데 열심이지만 그들을 빠르게 훈련하는 데는 큰 관심을 쏟지 못하고 있다. 몇 년이 흘러도 교회에서 어린 아기와 같은 모습을 고수하게 되는 부류의 성도들은 불행할 만이 많다.
4. 혼자서 막중한 부담을 떠안고 있는 성도가 있을 수도 있다. 우리는 때론 나의 짐과 고통에 집중

하느라 타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간과하기도 한다. 일지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범죄에 가담한 자녀를 둔 부모, 부모의 이혼을 지켜보고 있는 청소년, 너무 많은 교회 일을 떠안고 있는 성실한 성도 등 삶의 무게로 인해 인격과 언행이 과격해질 수도 있다. 만약 교회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게 어떤 직임을 부여할 경우 그들은 자신의 힘과 권한을 행사하는데 매몰되고 자신의 이익과 즐거움에 집중하게 될 수도 있다. 교회에서의 년차와 성숙함은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갖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선다는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같은 죄를 반복하며 머물러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죄의 책임과 대가를 따지게 된다. 타인의 죄를 짊어주면 자신의 죄가 상대적으로 작아보이게 하고 자신의 죄를 잊을 수 있기 때문이다.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학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석사: 목회학과 (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박사: 목회학과 (D.Min)
수료증: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8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5
admissions@wmu.edu, 213) 368-1005



2면
시론
김공운 목사



3면
원로칼럼
박종순 목사



7면
종교개혁 500주년
조진모 목사



8면
리더십 코멘터리
손동원 박사



16면
인터뷰
유재일 목사

제2회 청소년연합수련회



(참가신청 QR CODE)

기간 2017년 7월 24일(월) - 26일(수)
장소 나성순복음 국제 금식 기도원
대상 한인 중, 고등부 학생(6~12학년)
모집기간 1차 - 6월 18일(주일)까지 /
 2차 - 7월 9일(주일)까지 (선착순 120명)
신청방법 www.lafgc.com 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주관및문의 나성순복음 국제 금식 기도원
 (Tel. 951-928-4415)





시론

두려워 말라



김봉운 목사 (백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무서워 말라/근심(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모아보니 약 30회가 된다. 왜 이렇게 여러 번 두려워말라는 내용의 말씀을 하신 것일까?

첫째, 날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자고 깨면 두려운 일들이 다가온다. 5월 21일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올해에만 8번째다. 만약 미사일을 전쟁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한국은 물론 미국도 일본도 크게 위협하게 된다. 같은 날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리치먼드에 있는 스티브스톤 피셔먼스 부두에서 바다사자가 독에 앉아있던 7세 소녀를 먹이인 줄 알고 물고 바다 속으로 들어갔다. 소녀와 가족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한밤자고 난 다음날인 5월 22일(월) 영국 맨체스터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서 22명이 죽고 약 60명이 크게 다쳤다. 부모들과 함께 온 어린이들과 심대청소년들이 많이 모인 콘서트에서 이러한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을까? 참으로 두려운 세상이다.

1948년 루마니아의 공산정권하에서 투옥된 리처드 뱀브란트 목사님은 모진 고문이 두려워 기도하고 성경 읽는 일에 전념했는데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365회 있음을 보고 힘을 얻었다고 한다. 일년 365일 날마다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붙잡고 힘을 낸 것이다. 날마다 잠에서 깨는 순간부터 우리를 늘 따라다니는 것이 마귀인데 마귀가 하는 일이 두려움을 넣어주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를 마귀로부터 보호하시려고 두려워말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도둑질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과 다를 바 없는 명령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한다. 오늘도 가정 교회 일터 세상에 두려운 일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자!

둘째,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사무엘상 14장에 요나단이 블레셋 군인들을 죽이는 모습을 보던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이 들어 무너지고 흩어지며 나중에 자기들끼리 죽이므로 망하게 되는 전쟁사가 나온다. 전쟁에서 무기 군사력보다 더 무서운 것은 두려움에 빠지는 일이다. 제2차 세계대전 시 미군 사망자가 30만 명인데 아들,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고 마음을 조리며 두려움 속에 심장병에 죽는 시민이 100만 명을 초과했다고 한다.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인金門교(Golden Gate Bridge)는 공사가 시작된 1933년 1년간 공사 중 23명이 떨어져 죽었다고 한다. 건설회사가 안전 그물망을 설치한 후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작업능률도 20%나 올랐다고 한다. 두려움은 이처럼 삶을 위축시키고 파괴하는 것이다. 어느 심리학자의 실험기록을 보면 개들이 두려움을 품고 있는 사람을 보면 더 많이 짖는다고 한다. 그것은 개들이 사람이 품은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부모가 두려워하면 아이들도 불안하게 된다. 마귀는 날마다 두려움을 통하여 우리를 파괴하려한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두려운 일을 보지만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항상 안전망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보며 두려워하지 말자!

셋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사무엘상 14장에서 요나단은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수와 무관하다", "하나님이 자기백성을 위하여 일하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선포했다. 두려운 일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다. 릭 워렌(Rick Warren) 목사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너무 큰 슬픔과 두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기뻐한다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님이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또한 기뻐할 수 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렇게 하였고 지금은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대지의 작가 펄벅 Pearl Buck 여사가 쓴 어머니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글을 맺고자 한다. 펄벅의 부친은 중국 선교사였는데 부친이 출타한 어느 날 중국인들이 펄벅의 집을 습격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해 심한 가뭄이 와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것이 백인 여자 때문에 신이 노한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었다. 이 사실을 안 어머니는 차를 끓이고 케익을 굽고 과일을 준비하고 대문과 모든 문을 열어놓았고 몽둥이를 들고 집안으로 들어온 그들에게 차와 과일과 케익을 대접했다고 한다. 멧돼지 앉아서 차를 마시며,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과 자기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어머니를 번갈아보던 그들은 일어나 돌아갔다고 한다. 그리고 그날 밤 그렇게 기다리던 비가 내렸다고 한다. 펄벅이 어른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그날 밤 너무 무서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안전했었다고 말씀해주셨다고 회고하였다. 비가 내리던 그날 밤 펄벅의 어머니는 얼마나 울었을까?

요나단과 함께 하신 하나님, 펄벅의 어머니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릭 워렌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도 함께 하신다! 두려워 말라!!
pwkim529@gmail.com

경청은 무식도 녹여낸다! CT, 사랑이 담긴 경청으로 복음 전하는 지혜 소개

무종교인들을 찾아가는 사역으로 잘 알려진 뉴욕 리디머장로교회의 팀 켈러 목사가 사임을 밝히면서, 복음주의자들이 어떻게 하면 회의주의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얘기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데 전력한다면 다시 말해서, 경청하면 훨씬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켈러는 허핑턴포스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회의주의자들의 견해를 공감하며 대변할 수 있을 때까지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회의주의자 친구가 '그래, 그게 내 콤플렉스야. 그래도 지금까지 난 잘해 왔어'라고 말할 수 있기까지 말입니다. 그래서야 그에게 말을 하고 기독교 신앙을 권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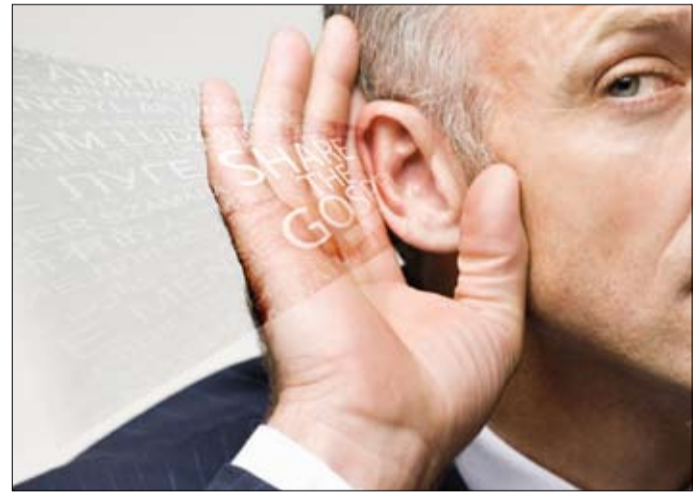
켈러는 전통적인 복음주의의 지혜를 되새겼다. "논쟁해서 누군가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상식과 연구 둘 다 이것이 진실임을 증명해준다. 종교적이건 여타의 것이건 한 사람이 강하게 붙들고 있는 신념을 변화시키려면 매우 어렵다.

그런데 논쟁이 누군가를 설득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 자명해 보인다 해도, 사람들은 그 시도를 중단하지 않는다. 페이스북에서부터 가족모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의견 충돌은 자주 논쟁으로 폭발한다. 사람들이 자주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회생활에서 정치와 종교에 관련된 주제들을 피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정말 너무도 위험할 뿐이다.

따라서 크리스처니티투데이(CT)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경청에 담긴 사랑의 힘을 심리학적 실험과 관찰 연구를 토대로 다시 한번 되새겨준다(A Lesson In Listening).

우리의 사회, 가족,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분열을 치유하고자 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대화를 할 수 있을지 배우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과학적 증거들이 그 비밀은 약고보의 권면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한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고, 노하기도 더디 하십시오"(약1:19).

설득의 어려움은 단지 사람들이 안고 있다는 데 있지 않다.



사람들은 자기 신념과 충돌하는 정보에 무의식적으로 저항 먼저 상대의 경험을 긍정하고 난후 도전해서 복음전하도록

사람들은 언제나 무슨 일이든 마음을 바꾼다. 진짜 문제는 누군가의 신념이 그의 정체성과 결부돼 있을 때 발생한다. 누군가가 신념을 바꾸는 것이 그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을 뜻한다면, 그 사람은 그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로부터 거부당할 위험에 이르게 된다.

이 사실을 안다면, 사람들에게는 신념을 확증해주는 정보를 찾고, 신념과 충돌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놀랄 일은 아니라고, 예일 법대의 심리학 교수 댄 카한은 말한다.

"사람들은 이것을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할 겁니다." 그는 말한다. 그러나 연구조사에 따르면 이런 현상(심리학자들은 '확증편향'이라 부른다)은 실제로 존재한다. 카한은 스포츠 비유로 이것을 설명한다. "서로 다른 팀을 응원하는 팬들은 아이슬하한 상황에서 서로 다른 것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는 말한다. "경기장에서 자기 팀 응원석에서 서서 자기 팀 선수를 가리키면서 '저 선수, 라인을 벗어난 것 같은데'라고 말한다.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해온 집단으로부터 거부당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신념과 대조되는 증거와 맞닥뜨릴 때, 우리는 방어 자세를 취하게 된다.

또한 이것은 누군가의 마음을 바꾸려는 노력이 왜 자주 실패한 역풍을 맞는지도 설명해준다. 사람들은 자신의 관점과 충돌하는 정보와 마주했을 때, 그 정보를 거부할 뿐 아니라 자신의 입장을 완강하게 고수하고, 이전보다 더 강하게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 한다. 어느 누구도 이런 경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할 만큼 진보적인 사람이든 보수적인 사람이든,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똑같이 이 사실이 적용된다는 것을 연구 결과는 보여준다. 자기 마음을 바꾸는 것에 대한 저항은 인간 본성의 것 같다.

2013년 카한과 그의 동료들은 1,000명 이상의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했다. 그들은 보수적인 사람들에게 반대의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도 동일한 패턴이 나타났다. 둘째, 연구원들은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그들의 이념과 합치할 때 정답을 맞힐 확률이 45% 정도 더 높았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에 비해 수학을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서는 25% 정도만 차이가 났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 편집국장: 유원정

<p>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 (323) 665-0009 (대 표) (323) 665-9025 (광고국) Fax: (323) 665-0056 (편집국) (323) 665-0046 (광고국) E-mail: lachpress@gmail.com</p>	<p>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대표) (718) 886-4424 (편집국) Fax: (718) 886-0074 (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p>
---	---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 (every Saturday) 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p>학위과정 Degree Program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L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Business Administration, Music, Theology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Aviation Management (General Aviation Management & Flight, Aviation Management & Helicopter Flight, Flight Dispatcher, Flight Attendant: Cabin Crew) Master Degree Programs: Counseling, Education, Music, TESOL, M.Div, MBA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usic, Doctor of Leadership, Doctor of Ministry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p>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p> <ol style="list-style-type: none">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On-Line 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p>2017년 항공학과 신설</p> <p>국제 항공기 조종사, 헬기 조종사, 항공 운항사, 객실 승무원 양성</p> <p>본교에서는 F-1 Visa 와 J-1 Visa 를 발행하며 집중영어교육(항공전문영어), 비행 조종 실습 및 항공사에서 인턴십도 가능합니다.</p> <p>J-1 VISA EXCHANGE VISITOR PROGRAM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J-1 Visa Sponsor 허가</p> <p>Midwest University는 미국 연방정부 국무성으로부터 교환교수, 연구원, 교환학생을 위한 J-1 Visa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스폰서로 지정 받았습니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수와 각 기관의 연구원, 공무원, 교사, 선교사님들은 안식년 동안 본교에 와서 연구나 강의를 할 수 있으며,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교환학생으로 본교에 와서 학점을 취득 하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아 인턴으로 미국의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p> <p>문의: 전화 (636) 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p>
--	--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 327-4645 / Fax: (636) 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 730-4750 / Fax: (571) 730-4751
E-mail: wdc@midwest.edu

전 교회적 역량이 투입되는 VBS로!

(1면에서 계속)

교육부만의 VBS가 아니라 교회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 교회적 관심을 이끌어내는 스페셜 이벤트가 요구된다. 다시 말해서, 어린이들만의 개회예배나 폐회예배가 아니라 전 세대를 향한 스페셜 이벤트로 진행하도록 한다. VBS 전후의 주일이나 특별한 날을 오프닝과 클로징으로 구성할 수 있다.

1)오프닝

오프닝의 최대 관건은 어린이뿐 아니라 전 세대에 VBS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주제에 맞는 데커레이션을 이벤트 전일까지 완료한다. VBS의 단순한 홍보문구뿐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는 VBS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

으키는 문구들도 제시한다. VBS 캐릭터 복장을 한 사람들을 곳곳에 배치한다. 테마에 맞는 부스들을 교회 마당에 설치해서 모든 교인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볼 수 있게 해 본다. 부스 옆에는 음향 시설을 설치해 VBS 관련 노래들로 활력을 불어넣는다.

2)클로징

단순히 한 부서의 폐회예배가 아니라 VBS를 의미 있게 마무리하고 전교회적 감사와 격려가 있는 클로징이 되도록 기획해야 한다. VBS 이후의 첫 번째 주일이나 교회학교 전체의 행사들이 마무리되는 주일에 클로징 행사를 가질 수 있다. 교회학교 전체가 여름 행사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도와준 분

들께 고마움을 표시하며, 행사를 통해 맛보았던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주일 낮이나 오후, 시간에 전교회적인 클로징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결론으로, 안하자니 그렇고 어쩔 수 없이 하자니 힘겹기만한 VBS를 치르고 있는 교회가 허다하다. 왜 힘겹게만 느끼는가? 한마디로 "전교회적인 사역"이 아닌 단순한 교육부 행사로 치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헌신한 교사들의 보람도 남지 않고, VBS에 참여한 어린이들에게 기껏 가르친 교육의 내용도 남지 않게 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 따라서 제한된 숫자의 부스 교사들과 PTA 회장단들만 힘쓰는 사역이 아니라 온 교회가 같이 하는 '열린 잔치 마당'이 되도록 해야 한다.

원로칼럼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대외활동 이야기(하)

그런가하면 음악선교팀을 만들어 전국 각 도시와 교회를 순방했고 태국, 몽골, 중국, 미국 등지를 순회했다. 충신남성선교협창단, 정성급의 성악가들과 바이올린, 리코더 등 연주자들이 합류했고 박미선, 송은이, 김석훈, 이경실, 이영자, 김영철 등 연예인들과 이규원(KBS 아나운서) 등이 연주에 합류했다. 국내는 제주, 부산, 포항, 대구, 광주, 인천, 청주 등지를 순회했다. 가는 곳마다 감동이 파도쳤다. 잊을 수 없는 일들이었다.

3)KWMA, KNCC, CCK

곽선희 목사님과 정진경 목사님의 뒤를 이어 2000년 3월 세계선교회 회장과 이사장으로 취임, 지금까지 섬기고 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선교사를 파송한 17개 교단과 선교사를 파송한 128개의 선교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교회는 현재 전 세계 169개국에 25,74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으며, KWMA 산하에는 30개의 단체와 협의체가 동역하고 있다. 1996년 11월 필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대표회장직에 취임했고, 2006년 2월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직에 취임했다.

필자의 소견은 목회와 연합사업은 섬김이어야 한다는 것이어서 섬김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위상을 높이고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 동역자들의 고견에 귀를 기울이고 예지를 모으는데 역량을 다했다.

4)한중 기독교 교류회

필자가 중국과 인연을 맺고 내왕한 것은 22년 전부터였다. 험난한 교제와 내왕의 세월을 거쳐 상해, 남경, 서울에서 네 차례 한중 기독교 교류 세미나를 개최했다. 문제는 만만디의 중국과 빨리빨리의 한국의 조화였다. 양자의 긍정적 관계 정립을 위해서는 인내와 기다림이 따라야 하고, 이해와 협력을 전제한 교류가 지속되어야 한다. 2014년 6월 제5차 한중 기독교 교류 세미나를 서울에서 개최했으며 한중 기독교 교류협회를 공식기구로 발족했다. 그 결과 교류의 장구가 단일화로 정리된 뒤 교류의 폭과 깊이가 더해질 것이다.

한국교회가 일방적으로 중국교회를 지원한다든지 한국교회의 개별적 프로그램 중심 시도 주입시키려는 시대는 지났다. 중국은 국가역량을 높이고 미국과 견주려는 국가행동에 사활을 걸고 있다. 중국교회 역시 예전의 그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접근법부터 바뀌어야 하는 시대적 요청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국교회는 중국교회와의 교류를 위해 범교단, 신학대학교, 기독교대학교, 선교단체, CEO 그룹과 뜻을 함께하는 교회들이 손을 잡았다. 한중 기독교 교류는 아시아 교회의 교류로 확장될 것이며 새로운 선교의 지평을 열게 될 것이다.

5)한국교회 지도자센터(한지터)

국가도 교회도 따지고 보면 지도자의 역량과 능력에 의해 향방이 결정되고 성과가 좌우된다.

필자는 교회의 건전한 성장과 지속적 발전은 '지도자'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대안으로 지도자센터를 설립했다. 해마다 한 차례씩 한국교회의 중핵목회자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국 각 지역마다 목회자 네트워크를 만들고 신학대학교 교수들이 전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4년 10월에 제 8회 세미나를 열어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었다.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전국 목회자들과 교수님들, 그리고 총목회 회원들과 충신교회에 감사드린다.

교회의 연합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독단과 아집과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숲 전체를 보는 혜안과 너그러움이 있어야 한다. 한국교회의 연합은 정결한 심성을 지닌 사람들에 의해 그 정통성이 이어져야 한다. 건강한 한국교회, 칭송받는 한국교회, 인정받는 한국교회의 웅장한 꿈을 위해 종의 도를 실천하는 섬김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서는 그날을 기대한다.

iamcspark@harmail.net

교회의 방치가 못된 교인 만든다!

(1면에서 계속)

7. 분노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아마도 이미 이런 유형의 사람을 알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들은 정말 말짱하게, 혹은 훌륭한 모습으로 있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화산이 폭발하듯 돌변해버린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빨리 사과하거나 회개하기도 한다. 하지만 쉽게 분노하는 사람들은 그 패턴을 깨기가 어렵다.

8. 교회가 그들을 방치하기도 한다.

교회에 종종 아주 못된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가 그들을 방치하기 때문이다. 여

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성도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성도의 무례함이나 불친절한 부분을 모른 채하고 넘어가기도 한다. 그들이 죄악 속에서 살아가도록 방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런 갈등회피는 기독교적이지 않다. 방치하는 행위 또한 마찬가지로 못된, 나쁜 행위이다.

경청은 무시도 녹여낸다!

(1면에서 계속)

결국 사람들은 정답을 알려주는 데이터가 아니라 그들이 선호하는 답이 맞다고 입증해주는 데이터로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편향성이 더 많이 있었다.

이 작업에 전제돼 있는 이론(정체성 보호인지, identity protective cognition)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자신의 정체성과 핵심가치가 위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방어기제가 작동하며, 자신의 신념과 충돌하는 정보에 무의식적으로 저항하게 된다."

사람들이 확고하게 믿고 있는 신념을 바꾼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긴 하지만, 정치적 설득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바꾸는데 더 수용적인 이슈들이 있다.

2016년 스탠포드 대학교와 캘리포니아-버클리 대학교 연구원들은 조사원 방문조사를 통해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서 트랜스젠더의 권리에 대한 생각을 들었다. 그들은 무대본 접근법을 사용해, 사람들에게 트랜스젠더 입장에서 생각해보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조사원들은 한 가지, 경청에만 집중했다. 조사원들이 사람들의 견해를 잘 이해했는지 확인할 때만 조사원들은 입을 열었다. 조사원들이 이런 식으로 사람들과 접촉하는 데 평균 10분 정도가 걸렸다. 참여자들은 이 대화 전에, 대화 직후에, 그리고 대화 3개월 후에 다시 조사대상이 됐다. 결과는 흥미로웠다. 연구원들이 알아낸 바로는 수개월간 유지됐던 피조사자들의 트랜스포비아 태도가 줄어 들었고, (조사원이 설교보다는 경청에 집중했던) 그 짧은 대화로도 피조사자들이 트랜스젠더에 대한 입장을 재고하게 할 만큼 충분했다.

이 연구는 이 분야에서 가장 큰 성공 스토리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그 결과들이 완전히 놀라운 것은 아니라고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정치학 및 커뮤니케이션 교수

인 다이애나 뮤츠는 말한다. 그녀는 이런 극적인 결과들을 어떤 이슈에서나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이 결과는 사람들이 이미 자신의 견해를 확고하게 다지지는 않은 이슈들에 한해서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어떤 이슈들에서 이미 충분히 견해를 발전시켜 놓았다면 그에 대해 설득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이와 비슷한 연구로, 조사원들은 낙태 이슈에 대해 논의를 연구로 지적했다. 이 연구에서는 경청 중심의 접근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 비효율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롭 윌러와 토론토 대학교의 매튜 파인버그가 알아낸 바로는, 어떤 사람의 강한 신념에 영향을 주려면 그 사람의 도덕적 가치를 고려해 논쟁의 틀을 짤 다음에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연구원들은 일련의 여섯 가지 연구를 수행해 이 결론에 도달했다. 이 연구들의 목적은 정치적 논쟁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 연구팀은 정치적 스펙트럼의 양 극단에 있는 참여자들에게 동성혼과 보편적 건강복지, 국방비, 영어를 공식언어로 삼는 것 등의 문제들에 대해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게 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가장 성공적인 논쟁은 진보적인 사람들은 보수적인 사람들의 권위에 대한 존중이라는 가치에 호소하는 것이었고, 보수적인 사람들은 진보적인 사람들의 평등과 공정성이라는 가치에 호소하는 것이었다.

위의 두 경우 모두에서, 사람들은 정말로 자신의 마음을 바꾸었다. 그들은 이러한 기술(도덕적 기반 이론)이 사용됐을 때, 반대편의 견해를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고려했다. 핵심은 논쟁의 틀을 짜기 위해 상대방의 가치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청, 이해하기 위해 질문하기, 그리고 공감 보여주기가 요구된다.

한편 신자들 사이의 연합을 증진하고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며,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끌기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연구 결과는 아주 오래된 성경의 지혜를 더욱 견고하게 해준다. "말은 더 많이 줄이고, 듣기에 더욱 집중하라."

조나단 도슨은 텍사스 오스틴의 시티라이프교회를 설립한 목사이자 2015년 "CT, 올해의 책"에 선정된 "왜 복음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었다(The Unbelievable Gospel: Say Something Worth Believing)의 저자다. 그는 경청에는 성경적 근거가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경청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받을 때 사랑 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도슨은 말한다. 무엇보다 상대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모른다면 감동이 있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나눌 수 없다.

도슨은 상대의 경험을 긍정하는 것, 그리고 복음으로 도전하는 것, 이 두 가지 모두에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도록 권면한다. 그러나 여기서 그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덧붙인다: 긍정하라. 그 다음에 도전하라.

"그러면 복음은 살아 있는 것이 됩니다. 복음은 단지 복음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말한다. "예수님이 똑같은 방식으로 두 번 복음을 나누는 것을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지 우리는 한 가지 재능만 가진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도슨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열린 우리의 교리에 동의하게 만들고, 그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려 하는 마음을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방적인 방식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과학이 입증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도슨은 말한다. "경청 중심의 접근은 값이 많이 듭니다." 그는 말한다. "사랑은 값비싼 것이니까요."



Grace Mission University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ATS 정회원 및 미주한인 신학교 최초 D.Miss.(선교학 박사) 과정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여러분을 초대 합니다

학위과정	선교학 박사 (D.Miss) 목회학 석사 (M.Div) 기독교 교육학 석사(MA CE) 선교학 석사 (MA ICS) 신학사 (BA)
특혜	한인신학교 최대규모의 도서관 저렴한 교육비, 다양한 학교 장학금 수여 English Track LA Extension Class 1-20 발급 연방정부 학비보조 (Federal Student Aid) 온라인 통신으로 전과정 제공 HD 시스템 온라인 강의 한인신학교 최초 "Live" 강의

2017년 졸업식 및 학위 수여 예배

일시: 2017년 6월 5일(월) 오후 7:00
장소: 은혜 한인교회 비전센터 본당

강의 일정 (자세한 일정은 학교 홈페이지 참조)	D.Miss	최근의 세계 선교전략 통일 선교신학 논문작성법
여름특강		· Career & ministry development seminar (진로 및 사역개발 세미나) · Contemporary Trends in World Mission (세계선교동향) / 헬라이어
LA Extension 공개 여름 특강		· Counseling & Education for youth at risk 위기 청소년 상담과 교육 (7월5,12일) · Missional Church선교적 교회 (7월19,26일) · Church Communication 교회 커뮤니케이션 (8월2,9일)

ABHE 정회원

TRACS 정회원

ATS 정회원

2017년도 가을학기 등록 시작: 2017년 7월 1일
가을학기 수업시작: 2017년 8월 28일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 714-525-0088(대표), 515-5885(고객지원)
Email: admissions@gm.edu 웹사이트: www.gm.edu





목회서신

갈릴리 바다의 비밀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던 사역의 중심지는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주님의 마음의 고향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순박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자연이 그대로 보존된 곳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맑은 샘 같은 곳입니다. 주님은 그곳을 좋아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천사를 통해 베드로와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만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갈릴리 바다 같은 심령에 찾아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갈릴리는 지중해보다도 낮은 곳입니다. "검손의 골짜기에 은혜의 생수가 찬다!"고 했습니다. 갈릴리는 200개 이상의 마을이 주변에 둘러 있는데, 그 대부분이 어부와 가난한 상인과 천민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방 사람도 들어와 살기도 하는 소외된 땅입니다. 그들의 언어는 거친 사투리 투성이에 세련된

모습이 하나도 없는 평민의 땅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주님은 천국의 기둥이 될 12제자를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지 않으셨고,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헨리 나우엔의 글 속에 중세 수도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노련하고 존경받는 수도사 한 사람이 젊은 수도사를 교육 시키는 장면입니다. 아직 좀 건방지고 교만한 구석이 있는 젊은 수도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아주 견고하고 딱딱한 흙을 만지면서 "여보게, 여기 물 좀 붓지?" 하자 젊은 수도사는 물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흙으로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딱딱한 흙이라서 그냥 옆으로 흘러내리고 말았습니다. 노련한 수도사는 "이 딱딱한 흙은 물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옆에 있는 망치를 집어 들더니 그 딱딱한 흙덩이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후에 젊은 수도사에게 다시 물을 부어 보라고 했습니다. 젊은 수도사가 부셔서 부드러워진 그 흙 속에 물을 붓자 그 물이 흙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노련한 수도사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여기다가 말이야, 씨를 뿌리면 틀림없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 아니겠나? 수도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깨어짐의 법칙이라고 말하지." 그렇습니다! 깨어짐의 법칙이란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질 때 하나님은 거기에 물이 스며들게 하시어 거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는 꽃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딱딱하고 완고한 마음엔 임할 수 없습니다. 깨어져 부드러운 마음에 물과 같이 스며들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5월 9일부터 11일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해외한인장로회 제42회 총회에서 둘째 날 아침 두바이에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신철병 목사님께서 아침 경건회 설교를 맡으셨습니다. 문제가 많은 작은 교회에 부임해서 선교중심의 목회를 시작했는데, 어느 날 성도들을 데리고 파키스탄에 단기선교를 갔다가 산에서 교통사고로 추락했는데, 척추를 심하게 다쳐서 전신이 마비될 상황인데 기적으로 전신마비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척추에 쇠못을 여러 군데 박아야했고 척추 뼈는 한곳만 무사해서 그것으로 남은 평생을 살아야하는 신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매우 희한하게 각 나라

에서 선교사들이 찾아와서 차례로 강단을 지켰고, 교회는 부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침상에 누워있는 신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는 내 것이야, 너는 나의 종이 따름이야! 교회는 나의 피 값으로 주고 산 내 것이야!"하시는데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때부터 신 목사님은 철저히 깨어지고 낮아져서 "교회는 주님의 것이야! 주님께서 교회를 책임지신다! 나는 그저 주님의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종이 따름이다!"라는 생각으로 기도하며 목회했다니 성도들이 천명이상 모이는 부흥을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히 낮아진 심령, 깨어진 심령, 상한 심령이 있는 곳에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시편51:17).

푸/른/초/장

김성일 목사 (빅토빌예수마음교회)



벌써 2017년 5월을 지내고 6월을 맞이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은혜가 담겨 있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불순종으로 죄를 범함으로 에덴동산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을 통해 대속의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인간들의 죄가 관영함으로 노아시대에 홍수로 심판을 하시면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살리셔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사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애굽에서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3세대도 안되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백성들을 이방백성들을 통해 징계하시면서도 사사들을 들어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만 가진 뿐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빼앗겼던 땅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25절의 말씀은 더러운 죄악 가운데 빠져서 자기중심적인 삶의 흔적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는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려면 정결케 하

길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 형성을 맺기를 기뻐하십니다.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도 이미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엇인가 잘해서 된 것처럼 착각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특히나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마음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사명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선교지역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으면 기도는 행동력이기에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

살았던 자신의 과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죄 가운데서 좌절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만을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에게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도록 기도해야 하고 그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단절되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죄악에 사로잡힌 죄인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심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삶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어진 시간 동안 땅 끝까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함으로 이 회복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에스겔 36장 22절-38절)

그곳에서 번성하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그 어떤 가능성이나 숫자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백성을 회복시키므로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1, 3, 6, 16, 22절) 그 말씀들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2, 3, 4, 5, 7, 13, 14, 15, 22, 32, 33, 37절).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황폐하게 된 바로 그 땅을 회복하시면서 그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백성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갈 곳의 황폐함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9절에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가운데 회복케 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교현장을 놓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함께 하셔서 그 땅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그 땅을 하나님을 믿는 살아 움직이는 자들의 거주지가 되게 하신다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곳에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더러움에 찌든 사람은 그것이 더러운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우상숭배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인생살이인 것처럼 살아가기에 스스로 헤쳐 나올 능력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백성들 때문에 더럽혀졌던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스스로 거룩하게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스라엘백성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치 에덴동산에 창조된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불순종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신 것을 예표 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욕심이나 욕망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심으로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거역하던 불신앙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질적인 풍요나 번영을 회복시켜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을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순종을 배우게 되어 그 모든 더러움과 죄악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31절).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진장이었던 삶을 정리하시고 복된 신앙의

형성하기를 원하시며 기도하는 자들만이 겸손해지는 것이기에 우리로 기도하여야 한다고 하십니다.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해지거나 나타함

록하신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은 동성애를 비롯한 동성결혼과 사회적 가치관의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 세대 속에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20절)조차도 영적인 혼란의 상태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상실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을 회복케 하기 위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 그들에게 나타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범죄하며

시애틀 연합장로교회 장학금 선발 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 of Seattle Scholarship

시애틀 연합장로교회 장학금 선발

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 of Seattle Scholarship

시애틀 연합장로교회는 한인 기독교인들의 학업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많은 한인 대학생들의 지원을 바랍니다. 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 of Seattle (UPCS) grants scholarships to Christian students who pursue a degree program in the U.S. Applicants must meet the following requirements.

- [신청자격 / Qualifications to Apply]
* 신학이나 기독교 교육 및 음악을 전공하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An undergraduate or graduate student in Christian Theology, Christian Education, or Music.)
* 일반학부와 대학원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교인이나 교역자 자녀 (An undergraduate or graduate student whose parents are active church members or Pastors)
* 신청자는 미국 거주 세례 교인이거나 함 (Applicants must have received baptism)

[신청마감일 / Deadline]
* 2017년 6월 20일 / June 20th 2017

[신청방법 / How to apply]
* 시애틀연합장로교회 웹사이트(http://www.yunhapchurch.org) 자료실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관련서류와 함께 우편이나 아래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Download a scholarship application from www.yunhapchurch.org/documents.
* Complete the application and mail it with other required documents to the address below or email them to seattleyunhapchurch@outlook.com

[신청서류 / Required Documents]
1. 신청서 / Application
2. 에세이 : 신앙생활/전공/교회봉사/사역/재정상황/장래비전 (Essay : Personal Statement of Belief/Major/Church Service/Ministry/Financial Status/Future Plan)
3. 이력서 / Resume
4. 대학합격통지서(신입생의 경우), 성적증명서(재학생) (Admission Letter (for prospective college students), transcript (for enrolled student)
5. 해당교회 담임목사 추천서 (Recommendation from the head pastor (It is exempted for those who are active UPCS members))

[접수처와 연락처]
Mail to: ATTN: UPCS Scholarship committee / 8506 238th st SW, Edmonds, WA 98026
Email to: seattleyunhapchurch@outlook.com



TEL : 425-776-2711 FAX:425-774-2499 | www.yunhapchurch.org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정치적 정당성” 과 “거부의 권리”

범죄자로 의심되는 자를 “용의자”라 부를 수 없게 된 경찰!

오늘날 미국 안에서는 “정치적 정당성”(political correctness, PC)이라는 사회심리적 또는 문화적 사상이 오바마 정부시절에 급격하게 퍼져나갔는데, 그 심각성은 우리 일반인들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레드 워닝(RED WARNING) 사인을 주고 “죄”라고 확실하게 지정한 반기독교적이고 비도덕적인 개념, 사상, 의식, 행동사항들을 (자유진보주의, 인본주의, 다원주의 등등) 집중적으로 “정당화” 할뿐 아니라, 오히려 “옳다, 그것만이 진리이다”라고 외치며 일반시민들을 선동하고 하나님을 분명히 지적하신 “죄를 죄로 보지 않게” 선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신중하게 통찰

above all, obey the law”(직역: 지역 사회 구성원은 특정 지역에서 살며 직장에 가고 사회에 기여하며 법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또한 말하길, “범죄를 저지른 사람 또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자는 우선 “용의자”라고 해야 한다. 그들을 그저 평범한 주민으로 볼 수 없다. 이유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범죄자나 용의자를 법을 지키며 살고 있는 시민들과 동등하게 부르는 것은 시민들에게 모욕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한 경찰이 예를 들기를, 지난 4월에 무장강도를 하다가 들킨 Damarius Butts가 그를 쫓던 3명의 경찰에게 총을 쏘았는데, 경찰 리포트에 경찰 3명에게 총을 쏘는 이 사람을 “용의자 또는 범죄자”라고 하는 대신 “지역사회구성원”으로 써야 한다고 합니다.

기쁜 소식! “동성에 금지 셔츠 인쇄 안해도 된다” 기독교 인쇄회사 손 들어준 켄터키 법원

2012년에 켄터키 주 렉싱턴 시에 있는 인쇄 회사인 Hands on Originals의 주인인 Blaine Adamson에게 동성에 금지 셔츠를 위한 셔츠 인쇄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아담슨(Adamson)은 자신의 회사가 신앙적 입장에서 주문에 응하지 못하는 대신 주문이 들어온 동성애단체를 다른 인쇄 회사에 소개해주었는데, 동성애단체는 그 다른 회사에서 그들이 요청한 셔츠들을 다 무료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했듯이 동성애/양성에 단체인 Gay and Lesbian Services Organization(GLSO)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Hands On Originals

지난 5월 16일, 항소 법원에서 수석 판사 Joy A. Kramer은 Hands on Originals 회사가 “기독교 용품점”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회사 웹사이트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는 “서비스 거부의 권리”를 언급하며 아담슨이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다는 판결을 내려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Hands On Originals 회사가 웹사이트에 적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나눕니다:

“거부의 권리”: “Hand On Originals는 모든 성별, 인종, 종교, 성적 취향, 국가 사람들을 고용하고 또 고객으로 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제품이 선전하는 특성으로 인해 Hands On Originals는 회사 주인의 신념과 충돌되는 인쇄 주문을 거부합니다.”

시애틀, 범죄 용의자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명칭 변경해야 캔터키, 동성에 금지셔츠 제작 거부한 기독교인쇄회사 승소

하고 분별하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곧 한국과 세계 속으로 번져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PC 문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지난 5월 중순경에 일어났습니다.

자유진보주의(Liberal Progressive) 도시 중 하나로 잘 알려진 시애틀에서는 앞으로 경찰들이 범죄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더 이상은 “용의자”로 부르지 못한다는 법안이 통과되어 시애틀 경찰들이 “기가 막한다” “말도 안된다” “무슨 법이 이따위인가”라는 하소연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시애틀 경찰들은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용의자 또는 범죄자”라고 리포트하는 대신 “그, 그녀,”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member of community)”이라는 새로운 용어, 명칭”으로 불러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습니.

폭력적인 용의자들을 잡거나 연관된 사건을 맡고 있는 여러 경찰은 이 새로운 용어와 명칭은 “피해자들과 시민들에 대한 모욕적인 명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경찰들이 생각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이란 “Community members are folks who live in a particular area, go to work, contribute to society, and



시애틀 경찰 Guild Kevin Stuckey는 말하기를 “우리 보고서가 ‘Politically Correct-정치적으로 정당하게’ 들리게 하려고 워싱턴 주 정부가 이런 무의미한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경찰로서는 ‘지역 사회 구성원’이라는 용어가 너무 막연하다”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 안에서는 이미 청소년들과 젊은 층들 안에서 “Political Correct(PC)-정치적 정당성”이라는 개념이 번져왔습니다. 어느새 법과 사회 질서보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법보다 용의자/범죄자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깊이 묻어나는 PC 문화와 사회적 심리로부터 속히 미국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할 때입니다.

nals 회사의 대표인 아담슨을 카운티 인권위원회에 제기하고 위원회에서는 아담슨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고로, 아담슨 사장이 운영하는 인쇄소 방침에는 “Right to Refusal of Service-서비스 거부의 권리”라는 문장이 있으며, 기독교 인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기독교 법률 단체인 Alliance Defending Freedom(ADF)의 변호사가 아담슨을 대표하여 Fayette 순회 법원에 호소하고 법원에서는 아담슨의 종교적 자유를 보호하도록 당시 판결을 내렸으나 켄터키 시 인권위원회는 다시 그 결정을 항소 법원에 다시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법원 싸움 끝에

ADF 변호사는 Hands On Originals 회사는 켄터키의 종교적 자유 회복 법령(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Statute) 아래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으로 아담슨은 그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자신의 회사를 운영할 자유가 있다고 변호했습니다.

그러나 동성에 인권단체인 GLSO는 이번 판결을 위험한 선례를 만들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들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을 보호하는 잘못된 판결이므로 켄터키 대법원에 호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ADF 수석 고문 Jim Campbell은 말하기를 “미국인은 항상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신앙을 표현할 자유가 있어야 하며 양심을 위반하는 것은 안 해도 될 자유가 있어야 한다. 오늘의 판결은 모든 미국인의 승리”라고 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아래에서 철저하게 빼앗겼던 헌법적 권리인 크리스천들의 신앙의 자유가 트럼프 행정부를 통해 조금씩이나마 회복되고 있어서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난 8년간 역차별과 핍박아래 유린되었던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자유가 법적으로 온전히 회복되려면 아직도 영적전쟁은 계속 되기에 계속 기도가 필요합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로 개척교회입니다. 저는 권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교세도 약하다 보니 사실 한 교인도 귀합니다. 그런데 몇달 전에 새로운 집사님이 오셨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몇 달도 안되어 장로로 임명을 하셨습니다. 아직 교회에 오신지 몇 달 안되는 집사를 그렇게 쉽게 장로로 임명한 것에 대해 교인들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은 교회이지만 그렇게 몇 달도 안되어 목사님이 단독으로 장로를 임명할 수 있는지요? 장로교단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오렌지카운티에서 모 권사

A: 개척교회에서 헌신하며 수고하시는 권사님께 수고가 많으시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하나님 앞에서 다 귀한 교회입니다. 특히 개척교회를 위해 늘 수고하시는 목회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척교회를 섬긴다고 큰 교회와 비교하여 우리 목사님은 부족하고 능력이 없다고 말해서도 안됩니다. 보통 교회는 일군 때문에 목사님의 목회가 힘들고 개척교회는 일군이 없어서 목회가 힘듭니다. 그리고 교회가 크나 작으나 일군을 임명하는 데는 교단법이 있고 교회법이 있습니다. 주로 그 교회가 속한 교단 법에 따라 일군을 세웁니

장로는 임명제가 아니라 교인들이 뽑는 선출직

다. 저는 한국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소속 목사로 있다가 미국에 와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교단 헌법은 거의 한국 예장합동측 헌법을 따랐고 문화적인 차이로 권사의 나이가 45세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선 질문하신 장로 임명직에 대해 권사님이 다니시는 교회가 어느 장로교 단에 속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권사님이 소속한 교회의 교단 법을 아시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로교 정치는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인 공동의회에서 투표로 장로를 선출하여 교인들의 대표로 삼고 목사와 함께 당회를 구성하여 모든 행정적인 문제를 맡기는 당회 정치가 장로교 정치입니다. 통상적으로 장로교회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교인들이 모인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통해 장로를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속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의 정치 5장에 의하면 장로의 자격은 만 30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서 흡없이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디모데전서 3장 1-7절에 해당하는 남자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는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투표로 공동의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치 제 11장 1조에 의하면 치리장로와 집사는 각 지교회 공동회의 규칙에 의하여 선거하되 유효 투표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로 피택된 후에도 교회가 속한 노회에서 고시를 거친 후에 당회가 임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서리집사는 당회가 일 년에 한 번씩 임명할 수 있으나 장로는 목사가 단독으로 임명할 수 없다고 봅니다. 교회가 일군이 적다고 너무 쉽게 장로를 세우는 것도 비성경적이라고 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을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저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일군이 적다고 해도 무자격자를 쉽게 장로로 세우면 나중에 오히려 목사의 목회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통 장로교에서는 장로는 임명제가 아니라 교인들이 선출하여 세우는 선출직입니다.

2017년 가을학기 베데스다 대학교 신·편입생 모집



www.buc.edu

“ACF 선정 Online 교육과정 미주 7위”(2015)



입학상담 자세한 정보는 buc.edu를 통해 확인하세요.
1-714-683-1207 (입학처) ▶ admissions@buc.edu
TEL:1-714-517-1945 / FAX: 1-714-683-1440 ▶ www.buc.edu

모집학과

- 신학**
 - 학부(B.A.): 목회학/성서신학/기독교교육학/선교학
 - 대학원(M.Div.): 목회학/성서신학
 - 박사(D.Min.): 목회학 박사
- 음악**
 - 학부(B.A.)/대학원(M.A.)
 - 건반악/관현악/작곡/지휘/찬양사역/실용음악/뮤지컬/컴퓨터.영화음악
- 경영학**
 - 학부(B.A.)/대학원(M.B.A.)
 - 일반경영/스포츠경영/법무행정
 - 경영 지식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인을 양성합니다.
- 유아교육**
 - 학부(B.A.)/자격증프로그램
 - 어린이집, 프리스쿨, 차일드케어 및 교회 유치부, 유년부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 ESL**
 - ESL I-20/ Certificate
 - 학부, 대학원생을 위한 본 과정과 ESL Certificate을 위한 어학연수 과정
- 온라인**
 - 학부(B.A.)/대학원(M.A./M.Div.)
 - 전세계 어디든지 온라인과정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 대학 스포츠팀**
 - 남녀 축구부/남녀 농구부/야구부
 - 미국 기독교대학 체육협회 NCCAA에 가입되어 체육 특기생으로 학업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BETHESDA UNIVERSITY | 730 N. Euclid Street, Anaheim, CA 92801

미국정규 4년제 대학교 SEVIS I-20발급
정부학비지원 (Financial Aid) 각종 장학금 혜택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부기스(Bugis)



부기스(Bugis)로도 알려진 부긴 종족군에는 부긴족과 4개의 밀접하게 관련된 종족들인

마이와(Maiwa), 마무주(Mamuju), 만다르(Mandar), 파타에(Pattae)족이 포함된다. 말레이시아의 부긴족을 제외하고는 이 부족들 모두 인도네시아 중앙에 있는 술라웨시(Sulawesi)주 남부에서 살고 있다.

언을 사용하는데 그 방언은 그 지역의 무역언어로 명성이 높다. 파타에족은 마마사 강변의 계곡에서 살며 마마사의 방언을 쓴다. 그 밖의 부족들은 술라웨시의 남서부 지역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동굴, 폭포, 크고 얇은 호수가 있는 녹음이 우거진 산악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부기스족은 식민지 이전 시대에 강력한 부긴 왕국을 건설하는 데 한 몫을 한 숙련된 전사들이라는 오랜 평판을 갖고 있다. 그들은 자급적인 사람들로서 외부인들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삶의 모습 부기스족이 한때는 난폭한 뱀사람과 해적들로 알려졌었지만, 현재는 대부분이 무역상, 어부, 벼농사

를 짓는 농부로서 일하고 있다. 쌀은 주요 생계작물이자 중요한 수출품이다. 오늘날, 일부 부기스 농부들이 트랙터로 논을 일구는 하지만, 아직 대부분은 아직도 황소나 물소를 이용한다. 술라웨시 남부에 사는 농부들 중 약 1/3이 자신의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부유한 농부의 논에서 어쩔 수 없이 소작을 해야 한다.

강 계곡에서 사는 부기스족은 사람들은 논벼와 커피를 재배하며, 해안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코코넛, 코코야, 옥수수, 매니옥, 등야자 등을 경작하고, 해안변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어부들이다. 부기스족 사람들은 술라웨시의 몇몇 도시에서 일용 노동자로 종종 일을 하기도 한다.

고기잡이와 농사 모두 남자의 일로 여겨지기는 하나, 수확기에는 부기스족 여자들도 일을 돕는다. 여자들은 또 집에서 비단 "사롱"(sarongs, 남자가 모두 입는 화려한 색깔의 치마)을 짜고 그걸 내다파는 일을 한다. 사실, 대부분의

가계수입은 이러한 사롱을 팔아서 얻는 것이다.

부기스 사회의 2가지 두드러진 특징은 사회계층제도와 "순환이주(circular migration)"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수마트라(Sumatra), 칼리만탄(Kalimantan) 섬과 말레이시아에서는 고향과 일터 사이를 개인과 가족들이 계속해서 이동한다. 하위 계층의 부기스족은 부를 얻고 해외 경험을 쌓음으로써 그들의 지역사회에서 보다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특징들이 상당히 구조화된 사회를 형성한다.

많은 결혼들이 부모나 조부모의 결정으로 이뤄지며, 대개는 가까운 사촌 사이에서 이뤄진다. 이것은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하고 가족 내의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신혼 부부는 종종 결혼 처음 몇 년 동안은 여자의 가족과 함께 살며, 가족은 딸에게 대개 물려지지만 토지와 다른 재산은 아들들과 딸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된다. 부기스족 대부분은 땅에서 기동 위에 세워진 고상

식 가옥에서 사는데, 이 가옥에는 땅에서 3미터 또는 그 이상 떨어져 있으며 판자벽과 마루가 있다.

신앙 부기스족은 불교의 초기 개종자들이었지만 1600년대 초에 마카사르(Makassarese)족의 왕에 의해 이슬람으로 개종 당했다. 만다르족 무역상들이 인도네시아의 다른 섬으로 이슬람을 퍼뜨렸고, 그 이후로 부기스족은 강하고 심지어는 호전적인 수니파 무슬림 민족이 되었다. 그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할 뿐 아니라 이슬람 축제와 금식을 지킨다. 하지만, 그들의 이슬람 관행은 심령술(spiritism, 보이지 않는 많은 신령들의 존재를 믿는 것)과 조상숭배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필요로 하는 것들 부기스족은 무슬림이며, 400년 동안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견고하게 저항해왔다. 제2차 세계대전 직전에, 술라웨시 남부는 작은 영적 각성을 경

험했으며 그 당시 1만명의 부기스 기독교인이 생기게 됐다. 그러나 불행히도 일본인들이 교회 대부분을 파괴하고 이슬람 투사들이 그나마 남아 있는 기독교인을 학살했다. 오늘날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독교 선교사들에게 문을 닫고 있으며, 부기스족의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알려진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성경이 아직 여러 부기스 방언으로 번역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성도들은 박해를 받고 교회는 지하로 들어갔으며 대부분의 마을에서 복음에 접하게 될 기회를 갖기 어렵다. 술라웨시의 다른 지역에서는 기독교 교회가 약간 있긴 하지만, 그들이 이웃의 무슬림 부기스족에게 다가서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지 교회들이 영적 정체감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보고에 의하면 그들 가운데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비주의를 행하고 있다고 한다. 성경에 따른 가르침과 목회가 심각하게 부족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테러 충격 맨체스터 위해 기도들” 하나된 영국

영국교회와 맨체스터 아레나 테러로 충격에 빠진 영국인들을 위한 기도회에 나섰다.



영국교회들은 ‘맨체스터를 위해 기도하자(Pray for Manchester)’는 슬로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광고판 등으로 확산시키며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영국인들의 결속을 독려하고 있다. 영국 성공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팔에 의지하자”고 당부했다. 성공회 신자인 테리사 메이 총리는 “나의 생각과 기도는 맨체스터와 함께 있다”고 밝혔다.

24일 영국의 기독교 매체 등에 따르면 테러 이후 맨체스터 지역교회들은 희생자와 부상자 가족, 영국의 하나 됨을 위한 기도회를 열고 있다. 부상자들을 위한 피난처를 제공하는 등 나눔과 섬김에도 앞장서고 있다.

테러 사건이 발생한 맨체스터 아레나에서 2분 거리에 떨어진 ‘오메이서스오순절교회’는 사건 당일부터 교회를 개방하고 기도와 상담에 나섰다. 인근 병원 원목실과 연계해 부상자들을 위한 돌봄 사업도 펼치고 있다. 이 교회 제이슨 알렉산더 목사는 “크리스천들은 기도할 책임이 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슬프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자”고 말했다. 이 교회는 테러 이튿날인 23일 저녁 인근 교회들과 연합기도회를 열었다.

맨체스터성공회교회는 사건 현장의 경찰 저지선 바로 앞에서 기도회를 열고 희생자와 부상자, 가족들을 위해 기도했다. 맨체스터 크라이스트처치는 트위터에 “누구나 오라. 희망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자”며 기도회를 알렸다. 바인라이프교회도 트위터로 기도회를 알리며 “맨체스터를 위해 기도하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도시를 재건하자”고 호소했다.

영국성공회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와 존 센타무 요크 주교, 데이비드 워커 맨체스터 주교 등은 요크에서 긴급 기도회를 열었다. 웰비 대주교는 “사악한 무리가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생명이 죽음을 극복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센타무 요크 주교는 20년 전 발생한 아일랜드공화군(IRA) 폭탄 테러 사건을 언급하며 “중요로 서로 분열되지 말자. 어떤 것도 우리를 나눌 수 없다.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자”고 권면했다.

이들은 공동기도문을 발표하고 주님의 팔(arm)을 간구했다. “주님의 영원하신 팔(everlasting arms)이 희생자를 안아주소서. 사랑스런 팔(loving arms)로 희생자와 부상자, 그들의 가족을 위로주소서. 강한 팔(strong arm)로 테러에 대처하고 재건케 하소서.”

“일가족이 IS 조직원” 英 테러범 가족 리비아서 검거

지난 22일영국 맨체스터에서 벌어진 자폭 테러가 단독 범행이 아닌 거대 ‘네트 워크’ 안에서 이뤄졌다는 단서가 드러나면서 수사 당국이 배후 실체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자폭 테러범인 살만 라마단 아베디(22)의 동생 하심(18)이 리비아 경찰 조사에서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와의 연계 사실을 인정했다고 알려지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5일 AP통신에 따르면 맨체스터 경찰은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아베디의 형 이스마엘(23) 등 8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폭발물을 추가로 발견해 해체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리비아 정부는 아베디의 아버지가 이번 테러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붙잡았다. 하심은 “나와 형은 IS 소속”이라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아베디가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 테러, 지난해 3월

벨기에 브뤼셀 테러와도 연계돼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 정부는 미국 정보 당국이 수사 내용을 무분별하게 언론에 흘리자 격분하며 공식적으로 비판했다. 미 뉴욕타임스는 전날 사건 현장인 맨체스터 아레나에서 수집된 것으로 보이는 기폭장치와 배낭, 너트와 볼트 등의 사진을 공개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정보 누출에 대해 항의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 이번 테러와 관련된 수사 정보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것을 중단키로 했다. 영국 정부 관계자는 “미국 내부에서 나온 사진이 희생자 가족과 시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동남아로 손뼉은 IS, 자카르타서 자폭테러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24일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소행으로 추정되는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경찰 3명이 숨지고 경찰과 민간인 10명이 다쳤다.



영국 맨체스터에서 IS 연루 자살폭탄 테러가 일어난 지 이틀 만에 아시아 쪽으로도 IS 세력이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로이터 통신 등은 이날 오후 9시쯤 자카르타 동부 버스정류장 옆 주차장에서 5분 간격으로 연쇄 폭발이 발생해 민간인과 파레이드를 경호하던 경찰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보도했다.

폭탄을 터뜨린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의 시신도 현장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IS와 관계가 있다”며 “이들의 가방에서 테러에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나사와 산탄, 압력밥솥, 지난 22일 밥솥을 구입한 내역이 담긴 영수증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이들의 신원은 서부 자바주 반둥 출신의 이흐완 누를 살람(40)과 아흐마드 수크리(32)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추가 조사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87%인 2억명 이상이 이슬람교 신자인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27일부터 이슬람 최대 축제인 라마단(이슬람 성월) 기간이 시작돼 극단주의 단체의 활동이 활발해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테러 경계 활동을 강화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002년 극단주의 단체가 발리에서 폭탄 테러를 일으켜 202명 희생됐다. 이후 경계를 강화했지만 테러단체의 활동은 최근 빈번히 일어났다. 지난해 12월 경찰은 자바에서 액체폭발 물질이 담긴 압력밥솥을 지니고 테러를 모의하던 일당을 적발했다. 지난 1월 자카르타에서는 IS 추종자들이 폭탄을 터뜨리고 총을 난사해 민간인 4명이 숨졌다.

이집트서 콥트교도 버스 무차별 총격, 26명 사망

이슬람권 ‘금식 성월’인 라마단을 하루 앞둔 26일 이집트 남부 지역에서 콥트 기독교도들 26명이 숨졌다. 이집트 국영TV와 알야흐람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45분경 콥트 기독교도들이 탑승한 버스가 수도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약 220km 떨어진 민야 인근에 있는 성사부유 수도원으로 향하던 중 무장괴한으로부터 총격을 받았다.



이집트 보안 관계자는 “사류구동 3대에 나눠 탄 괴한 무리가 도로에서 주행 중인 버스를 강제로 멈춘 뒤 자동소총으로 총격을 마구 가했다”고 말했다. 이 공격으로 버스에 타고 있던 26명 이상이 사망하고 최소 25명이 다쳤다고 민야주 의료진이 밝혔다. 사망자 중에는 어린이 다수와 60대 노인도 포함돼 있다.

시신과 부상자들은 인근 민야국립병원과 카이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집트 국영 나일TV 화면을 보면 공격을 받은 버스 차체와 옆면 유리창은 총탄 세례로 크게 파손됐으며 앞면 유리창 전면도 완전히 부서졌다.

이집트 일간 ‘알유7’은 전투복 차림에 복면을 한 괴한 8-10명이 도로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버스에 접근했다고 전했다. 피습 당시 콥트 기독교도들은 버스 2대와 소형트럭 1대로 차량 행렬을 이뤄 이동 중이었다고 한 보안 소식통은 말했다.

이번 공격의 배후를 자처한 단체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날은 이슬람권의 ‘금식 성월’인 라마단이 시작하기 하루 전날로, 최근 몇 년간 아랍권에서는 라마단 전후로 이슬람국가(IS)와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의 테러가 기승을 부리기도 했다.

현재 이집트 군인과 경찰은 현장 주변을 봉쇄한 채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범인들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알렐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이 사건 직후 긴급 안보 회의를 소집했다.

이집트 이슬람 수니파 최고종교기관 알야즈하르는 “민야에서 벌어진 사건은 무슬림과 기독교도들 모두가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이집트의 안정을 해치려고 한 공격”이라고 밝혔다. 이집트에서는 소수 종교인 콥트 기독교도를 노린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의 공격이 자주 발생했다.

이집트에서는 지난 4월9일 알렉산드리아와 나일델타 타타에 있는 콥트교회를 겨냥한 연쇄 폭탄 공격으로 최소 45명이 숨지고 118명 이상이 부상했다.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이 사건 직후 3개월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지난해 12월에도 카이로의 한 콥트교회 예배실에서 폭탄이 터져 적어도 25명이 사망하고 49명이 다친 적이 있다. IS는 이러한 두 공격의 배후를 자처했다.

‘동성결혼에 반대할...’ 스코틀랜드장로교회 보고서에 반발 거세

스코틀랜드장로교회 총회에 “교회에서의 동성결혼에 반대할 신학적 이유가 없다”는 보고서가 제출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BBC방송 등 영국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스코틀랜드교회 신학포럼(신학위원회)은 최근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교회에서의 동성결혼을 허락하지 않을 충분한 신학적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혼은 두 사람 간 약속으로, (이성을 포함해) 동성 간 결합으로 확대하는 게 일부다처제를 허용하거나 인간과 로봇의 결합으로까지 확대되진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스코틀랜드교회가 동성혼을 부정하는 과거 발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포럼을 주관한 이안 토랜스 목사는 “나는 이 긴 논쟁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길 희망한다. 사과는 이분법적 논의에서 벗어나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교회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영 거스교회 매일 런던 목사는 “동성애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하는 죄악”이라며 “하나님이 악이라 말한 것을 우리가 선이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이크 고스 목사도 “동성애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절대로 설계한 적이 없는 일”이라면서 “우리는 옳지 않은 일(동성간 결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없다”고 했다. 인근 국가인 아일랜드의 장로교회연합도 성명을 내고 “스코틀랜드교회가 오늘날 행하고 있는 동성혼 허용 행보에 대해 큰 유감을 표한다”면서 “결혼을 아무리 현대적으로 해석해도 ‘결혼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란 성경 말씀은 여전히 진리”라고 밝혔다.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즈·북아일랜드 4개 자치국 연합인 영국에선 법적으로 방임하는 편법으로 동성혼을 허용하고 있지만, 교회는 성공회와 장로교 가톨릭 등 교파를 막론해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한국교회도 우려하는 분위기다. 고려신학대학원 이성호 교수는 “서구 교회가 하나 둘 동성혼을 인정하게 되면 한국교회에도 이런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고 걱

정했다.

대만, 아시아서 첫 동성결혼 허용 전망

대만 사법원(헌법재판소)이 24일 동성결혼을 금지한 헌법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대만에선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이 허용될 전망이다.



대만 자유시보(自由時報)와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대만 사법원은 이날 오후 4시 심리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한 헌법위헌법을 위헌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사법원은 헌법 법률이 두 명의 동성애자 결혼을 허락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혼인의 자유 보장과 성별 평등권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법원은 이어 법무부에 2년 내로 법 개정을 통해 동성혼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법원은 “이성간 결혼에서 자녀를 반드시 출생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으며 자녀를 출생치 않거나 불임인 경우 결혼이 무효라는 규정도 없다”면서 동성애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만에선 지난해 12월 26일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의회 첫 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번 헌법해석에는 대법관 14명, 학자 8명, 5명 사법관 출신을 비롯해 전문가 6명 등이 참석했다.

본 헌법 해석안은 치자웨이(祁家威·59)씨가 2013년 3월 타이베이시 완화(萬華)구에 동성혼인 등기를 신청했다. 거절당하면서 시작됐다. 행정소송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았다.

치 씨는 대만 민법 내 혼인 규정 중 ‘동성 2인간 법률상 혼인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구절을 위헌으로 주장해왔다. 타이베이시 민정국(民政局)이 민법상 혼인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며 동성혼인 신고에 반기를 들자 헌법해석 논란이 제기돼 왔다.

대만 동성결혼 찬성론자들은 1990년대부터 동성결혼 허용을 요구해왔다. 특히 동성결혼 허용을 주장해 온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작년 5월 집권하자 이런 요구가 고조돼왔다.

스리랑카 기독교 박해 극심 “지하교회에 사는 것 같다”

스리랑카 불교도들이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광고전단(관보)을 사용해 현지 복음주의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기독교 박해를 감시하고 핍박 받는 기독교인을 돕고 있는 한국 순교자의 소리(VOM·공동대표 에릭 폴리, 현숙 폴리)는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광고전단 배포를 중단하라”며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28일 VOM에 따르면 현재 스리랑카에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계속되고 있다.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60여건의 종교적 핍박 사건들이 보고됐다. 예배 활동이나 기도모임에 대한 중단 요구, 교회당 파괴 등이 대부분이다. 스리랑카 복음주의연합 고드프리 요가라자 사무총장은 “스리랑카 기독교인들은 마치 지하교회에 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VOM은 전했다.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는 주로 불교도들에 의한 것으로 1980년 스리랑카 기독교가 성장하면서 불교 극단주의자들의 반대로 증가했다. 2012년 불교 극단주의가 등장하면서 핍박은 더욱 격렬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 불교 승려들이 폭력적 균형을 이끌었다고 VOM은 전했다.

불교도들의 박해는 정부가 발간한 광고전단을 오용하면서다. 문제의 광고전단은 2008년 발행된 입법예고 문서다. 교회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하지 않은 교회는 불법으로 간주해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입법 절차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전혀 없다.

직분

하나님의 일을 바로 감당하기 위하여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소명과 사명이다. 소명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정하시고 일을 맡을 사람을 부르신다. 과연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자명하게 가르치는 것이 있다.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가 일을 맡기는 자는 믿음과 순종을 겸비한 사람이다. 맡은 자에게 충성을 요구하기에 사명에 불타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일을 맡기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교회를 섬기는 다양한 직분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제직이라 하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를 말한다. 이 중에 성경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직분은 권사이다. 한국에 파송된 초기 선교사들에 의해 선교지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미국 본부의 허락을 받아 도입되어, 아직도 한국 교회에만 있는 직분이다. 이와 달리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는 성경에 그 역할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꿈꾸고 있던 시기의 중세 가톨릭교회는 사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상대적으로 장로 또는 집사의 역할은 물론, 평신도의 역할이 축소되어 있었다. 루터는 교회를 떠나지 않은 채 성경에 근거한 모습을 이루기 위하여 개혁을 시도하였기에, 당연히 중세 교회의 직분론의 오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루터는 중세 교회의 속한 사제로서, 그 누구보다 가톨릭의 사제주의와 교권주의의 오류를 잘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그는 사제와 평신도라는 이중적 구도의 전통 속에서, 거의 소멸되어버린 평신도의 역할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별한 직분을 받지 않아도, 성도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다.

만인제사장에 대한 오해

로마가톨릭교회는 루터를 위협하며 목숨을 제거하려하였다. 면죄부를 포함한 신학적으로 다른 의견을 피력한 이유도 해당 사항이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루터가 '만인제사장설'을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과연 루터가 말한 '만인제사장설'은 어떤 내용이었을까?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루터의 교회 개혁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대교회에 목사와 평신도의 구분을 두는 것이 심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다.

가장 예민한 부분은 누가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자냐는 것이다. 이들은 '만인제사장'에 근거하여 평신도들도 목사와 같이 설교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교회 직분론의 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루터가 분명 평신도들을 마음에 두고 '만인제사장설'을 주장하였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가 저술한 "교회의 사역자를 세우는 일

가?

이런 질문은 루터의 '만인제사장설'에 대한 오해에 근거한 것이다. 루터의 생각에는 변화가 없었다. 단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졌을 뿐이다. 그는 목사와 평신도 사이에 구분이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은 사실이나, 그가 지적한 사항은 '존재론적 차이'가 없다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졌던 것이다.

루터는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성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기록된 것을 예사롭게 생각하지 않았다. 성도들이 왕이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께서 그런 신분을 지니셨다는 것에 근거한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인

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없었다. 반드시 자신의 죄를 사제를 찾아 고백함으로써, 사람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고 가르친 것이다. 루터는 중세 교회의 타락을 단순히 도덕적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께서 그런 신분을 지니셨다는 것에 근거한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인

전개하였을까? 아니다. 루터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사장답게 살기를 기대하였다.

루터에게 제사장다운 성도의 삶이란,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었다. 루터의 '만인제사장'은 매우 실천적인 것이었다. 그는 교회 직분론을 설명하면서 이 사상을 정리한 것이 아니다. 도리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들이 지녀야 할 의무를 지적하면서, 삶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기 원했던 것이다.

성도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가 1523년에 저술한 "교회 사역에 관하여"에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신약에서 제사장이라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다. 모든 기독교인은 철저히 제사장이고, 모든 제사장은 그 자체로 기독교인이다. 그러므로 누군가 사제가 평신도와 무엇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해, 루터는 세례를 통하여 영적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를 믿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성도는 제사장이 된 것이라고 천명한 것이다.

루터의 관심을 이룬 신분의 변화에 버금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도는 이 세상의 세속과 싸우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성도들도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 구별된 삶으로 요구하신다는 것이다. 물론 루터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완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이 요구가 완전하게 해결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으니,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하며 살아야 한다. 행동과 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

루터의 '만인제사장설'은 필자를 포함하여 일부가 거부할 수밖에 없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자면, 목사가 아닌 평신도들도 세례를 베풀고 성찬 집례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필자는 루터의 생각을 공유하지 않고 소개할 뿐이다. 그의 주장이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정도로 지나쳤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루터가 처했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한다면, 왜 그가 그리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covenantcho@yahoo.com

종교개혁 500주년 - 무엇에 관심을 기울일까? (10)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하나님이 일 맡은 자는 믿음과 순종 겸비... 맡긴 분이 누군지 알아야 '만인제사장'에 근거 교회직분론 개혁 주장... '보편/일반제사장'이 더 좋을 듯

에 관하여"라는 논문이 이 개념에 대하여 상세하게 정리해 놓았는데, 1523년의 일이었다. 이 전에 저술된 논문에도 직, 간접으로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피력하였다. 이와 같이 루터는 종교개혁을 주도해 나가면서 여러 영역에서 '만인제사장설'을 분명히 드러냈다.

보면, 목사나 평신도나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다.

만인제사장에 대한 사실

루터의 '만인제사장설'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종교개혁이란 커

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이다. 인간이 직접 하나님께 갈 수 없었던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가는 통로와 같았다.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되는 사제의 역할이 비성경적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 행위로 규정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루터는 중세 교회의 전통과 달리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만인제사장설'을 언급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루터의 '만

루터의 만인제사장설은 목사 평신도 '존재론적 차이'가 없다는 것뿐 제사장인 성도는 행동과 말로 세상에 그리스도 복음 전할 사명 있어

흥미로운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만인제사장설'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1530년 이후 루터는 목사와 감독의 직분에 대하여 분명한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였다. 그가 교회를 위한 직분론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설교를 맡은 목사를, 신분은 그렇지 않은 평신도와 구분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긴다. 루터가 종교개혁 초기에는 목사와 평신도의 독특성을 구분하지 않았지만, 후에는 '만인제사장설'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바꾸었다는 말인

다란 그림 안에서의 변화를 마음에 두어야 한다. 루터가 '만인제사장설'을 언급하며 염두에 두었던 것은 성직자 중심의 로마가톨릭교회 모습이었다. 예배 제도가 형식화되어, 평신도들의 영적 생활이 핍절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분명하게 간파한 것이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성도들이 라틴어 성경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심지어 이를 전하는 사제들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더듬거리며 읽어 내려가던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여

일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이 변했다. 이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렸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다. 루터는 일찍이 로마서 주석을 하면서, 5장 2절에 이 사실을 두드러지게 강조하며 '만인제사장설'을 주장한 것이다.

중세 시대 교회는 성도들이 직접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금하였다. 그 중에 '고해성사'가 일반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이다. 죄를 지은 성도가 그

만인제사장설'에 대한 오해를 없애고 제대로 설명하기 위하여, '보편제사장설' 또는 '일반제사장설'로 변경하여 부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제사장 성도의 삶

이제 우리는 루터의 '만인제사장론'은 중세 교회가 사제들만이 제사장임을 강조하였던 것을 배격하는 의미에서 출발하였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루터는 단순히 하나님께 기도도 나아가는 의미에 국한하여 '만인제사장론'을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www.rptse.com

동부개혁신장로회신학교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신교회 협의체(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군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 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 (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발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외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학과

대학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문의처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동부개혁신장로회신학교

학장 장 영 춘 박사

리더십 코멘터리 (43)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리더십 일기예보 5월 흐름, 6월 전망

5월의 폭설

미국 전역에 토네이도, 폭염 등 기상상이 잇따르는 가운데 콜로라도 주에서는 5월의 폭설이 내려 도로 교통이 끊기고 피해가 속출했다. 최근 바나 리서치그룹은 미국인의 인간관계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20%는 "때때로 외로운 감정에 휩싸인다"고 답했다. 현대사회는 자연과 인간관계를 포함한 모든 면이 위기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 교회와 직장 그리고 가정 모두가 위기 속에 빠져 있다. 영어의 위기(crisis)는 그리스어의 '크리시스'에서 유래하였다. 위기(危機)란 위험(危險)과 기회(機會)의 합성어인데 안전, 경제, 정치, 사회, 환경 등의 측면에서 개인, 조직, 지역 사회 또는 사회 전체에 불안정하고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돌발적인 사건을 말한다.

위기 상황에서 리더의 가장 큰 도전은 구성원들을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분명히 곤란을 헤치고 살아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모두 공유할 수 있을 때 상처는 회복되고 위기는 극복될 수 있다.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혼란에 빠진다. 이럴 때일수록 리더는 변함없고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는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리더의 역할과 자세이다. 교회와 사회에서 이러한 리더의 대처 능력은 위기 상황에서 성도들과 구성원들을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는 큰 힘이 된다. 리더의 솔선수범이 없는데 성도들과 구성원들이 리더를 따라줄 리 없다. 그래서 리더의 용기와 자신감 표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기극복의 출발점은 마음속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것이다. 리더십이란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활력과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자신이 믿지 않는 물건을 고객에게 팔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이 신봉하지 않는 승리 마인드를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는 없다. 폭풍이 거세더라도 이를 무릅쓰고 배가 항해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고 리더가 소신

을 보여주어야 한다. 결단을 추구하고 모든 관계자가 희망을 갖고 나아가게 하는 것이 폭풍의 위기 앞에서 리더가 자신감을 갖고 해야 할 일이다

위기 속에서 수많은 지도자들이 왜 낙심하고 실망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는가? 그것은 자신감의 결여 때문이다. 리더에게 자신감을 가로막는 낙심이 가장 큰 적이다. 목회자에게도 낙심이 문제가 된다. 사업가, 셀러리맨, 연예인, 정치인도 모두 그렇다. 가정의 아버지들도 자신감을 잃을 때 고개 숙인 아버지가 된다. 가장으로서 자신감이 없고, 사회생활에 자신감이 없고, 모든 일에 자신

감이 없다면 절망상태가 되고 병적인 사람이 되고 결국 폐인이 되고 마는 것이다. 지난 5월에는 흐린 날과 기상이변이 많았다. 그렇지만 6월은 맑은 날들이 많을 전망이다.

6월의 선샤인, 리더십 스펙트럼 3가지

사람들은 앞장선 리더, 책임진 리더만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담당해야 할 역할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리더와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상황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영향력 있는 리더십이 완성되는 것이다. 대통령 한사람이 잘해서 나라경제의 성장과 발전이 이룩되는 것이 아니다. 세계 일등국가가 되어 국민들이 풍요를 누리고 영향력 있는 초일류국가 되기 위해선 대통령과 국민 그리고 세계정세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국민 각자가 자기 의무를 지키지 않고, 권리주장만 하면서 제 할 일을 다 안하고, 또한 세계정세가 충분한 환경조성을 해주지 못한다면 아무리 하늘에서 내린 리더라 해도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다.

엘리트와 리더와의 차이는 이것이다. 엘리트는 A를 택하기 위해 B를 버리는 사람인 반면, 리더는 A와 B

를 잘 조화시키는 사람이다. 목회자가 신학적으로 철저한 설교를 하면 은혜가 없다고 한다. 반면에 은혜 충만, 복음 충만한 설교를 추구하면 신학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탁월한 목회자들에게는 은혜와 신학의 밸런스(balance)가 있다. 그들의 설교는 재미도 있고 깊이도 있다. 이것이 밸런스의 파워이다. 현대인들이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조화와 균형의 파워'다. 물질문명은 급격하게 변하고 역사는 극에서 극으로 흐르지만 교회는 하나라도 포기하면 안 된다. 밸런스를 유지해야 한다. 6월의 선샤인이 만들어내는 리더십 스펙트럼 3가지를 알아보자.

1) 예리한 지성의 소유자

크리스천 리더에게 있어 초석이 되는 것은 영성이다. 바이블은 영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음을 다 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신6:5, Love the Lord Your God will all your heart, mind, and strength). 'mind'는 지성을 의미하는데 영성은 바로 거룩한 지성(Sanctified Intelligence)인 것이다. 세상 모든 학문에 대해 크고 예리하게 성경적인 시각으로 분석하고 고민하는 능

2) 따뜻한 마음을 가진 리더

하버드대학교의 대니얼 콜만이 EQ(Emotional Quotient)라는 저서를 썼다. 감성지수의 구성요소는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힘, 자기보다 못한 상대를 풀어주는 동정심, 일에 대한 무서운 열정, 사랑, 인내, 부지런함, 양보, 정직성, 창조력 등이다. 이러한 것들이 한데 모여 감성지수를 만든다. EQ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지수이다. 예수께서 당시 리더들을 질책하셨는데 그 이유는 율법은 있으나 사랑은 없고, 정죄는 있으나 은혜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리더에게 따뜻한 마음이 필요할 때이다.

3) 역경을 이겨내는 파워

폴 G. 스토츠라는 학자는 인생에서 장애물을 만난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장애물을 만나면 망가는 사람(Quitter), 장애물을 만나면 기다리는 사람(Camper), 장애물을 만나면 장애물을 뛰어 넘는 사람(Climber)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은 리더에게 역경을 이겨내는 파워가 필요할 때이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리더가 되라

남 말을 듣지 않고 '나 홀로 리더십'만을 강조하는 독불장군의 시대는 지나갔다. 경청이란 한마디로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더 나아가 경청은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잘 집중해서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인정해주는 것이다. 현대인의 삶속에서 경청의 중요성은 날이 증가하고 있다. 미래학자인 톰 피터스(Tom Peters)는 "20세기가 말하는 자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경청(傾聽)하는 리더의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영향력 있는 리더와 실패하는 리더의 대화 습관엔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경청하는 습관이다.

경청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는, 타인의 이야기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이고, 둘째는, 타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경청이란, 상대방과 대화를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하는 말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듣는 것을 말한다. 요컨대 듣는다는 것, 그것은 포커스를 맞추어 제대로 집중해서 들어야 함을 의미한다. 물고기가 추수로 세상을 세세하게 느끼고 인식하듯이 상대방의 제

위기상황에서 리더십은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활력과 동기를 부여하는 것 조화와 균형의 파워 이루어 거룩한 지성, 따뜻한 마음, 경청하는 리더로

력이 리더에게 필요하다. 지금은 리더에게 학벌이 문제가 아니라 예리한 지성이 필요할 때이다.

스처, 눈빛, 태도, 손동작, 움직임 등을 하나하나 면밀히 파악하면서 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말하는 상대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읽어낼 수가 있다. 영향력 있는 리더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다. 리더가 그런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어야 한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기 말을 진정으로 잘 들어 주고 자기를 존중해 주며 이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지난 5월에는 폭설이 내리고 기상이변이 잇따르는 가운데 도로 교통이 끊기고 피해가 속출했다. 또한 사람들은 외로운 감정에 휩싸여 고민하고 있었다. 이러한 환경과 인간관계의 위기 가운데 6월에는 예리한 지성의 소유자, 따뜻한 마음을 가진 리더, 역경을 이겨 내는 파워를 지닌 리더의 출현을 기대해 본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탁월한 리더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잘 집중해서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주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지도자들이여, 구성원들이 활기차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가? 그렇다면 6월의 햇살을 맞으며 구성원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기를 바란다.

sondongwon@gmail.com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범시립대학교 교수)

주님이 기뻐하실 졸업식

오월은 졸업식의 달이다. 봄, 겨울 일년에 두 번 당연히 참석하는 우리 학교 졸업식 말고도 올 봄에는 큰 아들 약혼녀와 막내아들의 졸업식까지 오월 한 달 동안 세 번이나 졸업식에 참석했다. 세 학교의 졸업식에 참석하면서 기독교 학교의 졸업식과 주립대학의 졸업식은 많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독교 학교 졸업식에는 졸업식 순서에 기도가 있고 축사나 학생대표의 연설에도 "하나님"이 꼭 등장한다. 반면에 일반대학 졸업식의 축사나 졸업생 연설은 학생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 미래에 대한 소망과 권면 등 좋은 내용으로 가득한 순서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축복의 근원되시는 하나님이 빠져 있다. 막내의 졸업식 전날 있었던 저녁식사 모임에서 축사를 한 교수님은 "무조건적 사랑"과 "평안"에 대해서 말했다. 기독교 학교가 아니었기에 나는 그분의 단어 선택에 호기심이 생겨서 연설을 귀담아 들었다. 혹시나 했던 나의 기대를 벗어나 그 교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기독교 단어를 사용했지만 불교 신자로서 불교의 준비와 평안을 설명했다.

우리 학교의 신학대학원은 졸업행사를 두 번 한다. 졸업예배가 있고 졸업식이 있다. 졸업식은 전체 대학원이 모이기 때문에 규모가 크고 웅장한 맛이 있다. 그런데 졸업식 전날 드리는 졸업예배는 신학대학원 졸업생들만 따로 모여 가족, 친지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더 오묘하며 의미 있게 느껴진다. 졸업예배의 마지막 순서는 교수들이 다 앞에 나와서 졸업생들 뒤에 서서 그들을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다. 때면 그 시간이면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방으로 흩어져 목회로, 선교로 떠나갈 제자들을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 그들이 나아가는 사명의 길이 그리 만만치는 않기 때문이다.

요즈음처럼 신학대학원이 학생들 숫자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시대에 적어도 삼년의 시간과 만만치 않은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감당하며 학교에 오는 사람들은 목회에 대한 확실한 소명이 있든지 아니면 신학과 성경교육에 대한 열정 때문에 학교에 온다. 대학원 과정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는 과정이기에 학생들이 졸업하면 각자 전공 분야로 나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머느리감도, 막내아들도 졸업 후 진로가 다 정해진 상태에서 졸업식을 하게 되어서 그동안의 수고와 성취에 대해서 축하하는 것이 졸업식 분위기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일은 없다. 그런데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는 우리 학교 졸업생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 학업을 마쳤는데 딱히 진로가 열리지 않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이다.

언젠가 우리 학교 자체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자료를 보면 종합대학 모든 단과 중에서 신학대학원 출신 졸업생들의 일년 수입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세상적으로는 대학원 과정을 마치면 더 나은 직장, 월급을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융자받은 등록금을 상환할 걱정을 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도 좁은 길을 걸었다고 신학대학원에 와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졸업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간구하게 된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오월의 여러 학교 졸업식에 다 참석하신다면 신학대학원의 졸업식을 가장 기뻐하시고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격려하고 축하하실 것 같다. 세상적인 명예와 부귀를 스스로 포기하는 길을 가겠다고 작정하고 시작한 신학과정을 마치고,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떠나보내는 졸업식이야말로 아름다운 졸업식이기 때문이다. (9면으로 계속)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주최

제3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3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방법:** 추천도서 4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며 분량은 리더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17년 10월 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1,000, \$5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회장 장영춘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p>추천 도서</p> <p>당신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유석경 저/구장</p> <p>광야의 소리, 윤종하 성서유니온</p> <p>나는 아메리카의 한국인입니다 김준자 역/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p> <p>감사 플러스 긍정 플러스 이영훈 역/아름다운 동행</p>	<p>회원사</p> <p>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교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너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민넷(뉴욕, 미국), 유럽 크리스천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크리스천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월드(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천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천 포스트(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천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크리스천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p>
<p>후원</p> <p>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도서 구입처), 로고스 선교회(회장 박도원 목사)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베델서적 949-854-9191 bethelbook@hotmail.com 조이서적 213-380-8793 www.joyla.com</p>	

지난 2015년 3월 11일 LA 한인 타운에서 불법으로 학교운영을 하던 4개 학교에 대해 연방검찰의 폐쇄조치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학교 정리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다.

올해 말까지 연방검찰에 의한 불법학교 폐쇄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해당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의 체류에 빨간불이 들어올

을 때 해당학교 유학생들이 타 학교 전학문제로 한차례 홍역을 앓았으며, 지난 2016년 12월 12일 연방 교육부가 "ACICS(Accrediting Council for Independent Colleges and Schools)를 더 이상 학교 인증기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인증지위 박탈을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학생 및 교

학교까지 불뚱이 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불법학교를 속아내는 작업 중에 있다고 보면 된다"며 "올해 말까지 일반 직업학교는 물론 신학교까지 불법여부를 가려내게 될 것이다. 기준은 학교들이 가입된 학위인증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교운영원칙을 잘 지키고 있느냐

재학 중인 학교에 대해 철저히 알아보지 않는다면 자칫 잘못하다가 학교폐쇄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러한 소식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의 반응을 보임과 동시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신학교협의회(ATS) 소속 신학교 박사과정을 받고 있는 모 신학생은 "미국학교의 비싼 학비가 부

기/도/칼/럼

가정을 살리는 예수



박헌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부부는 아담과 하와이다. 하나님은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셨다. 사랑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 생명대신에 사망을 택하였다. 가정에 어두움이 찾아왔다. 가인과 아벨을 낳으며 행복하게 사는 듯 했지만,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분을 참지 못해 돌로 쳐 죽였다.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불순종, 시기, 분노, 살인, 사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가정이 깨어진 것이다.

하나님은 무너진 가정의 회복을 원하셨다.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을 하라하시고 가정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신다. 셋, 에노스, 에녹, 노아, 아브라함, 다윗, 요셉을 통해 메시아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신다. 요셉과 마리아, 순종의 새 부부를 택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한 아기로 오시는 통로로 삼으셨다. 무너진 가정,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셔서 가정을 다시 세우는 사역을 하셨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드셨다. 가나 혼인 잔치 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며 최초의 기적을 가정에서 일으키셨다.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에서 고쳐주셨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해서 오라버니를 잃어버리고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기쁨을 주셨다. 독자가 죽어 슬피 우는 나인성 과부에게 아들을 살려 선물로 안겨 주셨다. 귀신들린 아들, 귀신들린 딸을 고쳐주시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웃음을 되찾아 주셨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을 택하여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는 장소로 삼으시고,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셨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할 정도로 효도를 실천하셨다.

에덴동산의 뱀은 지금도 쉼 없이 가정을 파괴 시킨다. 불순종, 원망, 시기, 다툼, 분노, 폭력, 살인, 걱정, 질병, 괴로움, 우상, 욕심 등 죄악으로 가정을 깨뜨린다. 그 무엇보다도 가정을 휘방하는 사탄을 대적할 수 없다. 가정을 회복시키러 이 땅에 오신 예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 예수를 믿으면 가정의 구원을 받는다. 모든 죄와 고통에서 건짐을 받는다. 부부, 부자, 동기간에 성령 안에서 사랑이 회복된다. 화목한 가정, 기쁨이 넘치는 가정으로 바뀌게 된다. 빌립보 감옥, 간수장의 가정을 보라.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을 때 온 집안에 큰 기쁨이 있었다.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다 가정의 달에 많은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기를 소망해 본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행 16:31).

bible66@gmail.com

기/자/의/는

박준호 기자(LA)

또다시 불어 닥칠 유학생 대란 2017년 말까지 불법학교 정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취재기자가 지난 5월 3일과 4일, 벨리나타로교회에서 열린 기감미주자지연회에서 나온 "올해 말까지 미주감신대학교가 ABHE에 정회원으로서 인준이 되지 않으면 학교운영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학교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이민법 변호사에게 확인한 결과, 올해 말까지 가주교육국(BPPE)을 비롯, 해당교육국에 인준된 학교들 중 교육국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한 학교들은 폐쇄조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지난 2015년 프루디야니버스티 등 4개 학교가 폐쇄조치됐

환방문자 프로그램(SEVP)'은 ACICS로부터 인증을 받은 학교 학생들에게는 1-20를 발급하지 않고 있으며, ACICS 소속 학교들 중 타 인증기관으로부터 재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의 유학생들은 최악의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서 루미비자 신분만 되어야만 했다.

연방교육부와 연방검찰은 올해 말까지 미주에서 운영 중인 각종 학교들 중 BPPE 등에서 마련한 학교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어긴 학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한인 신

가 될 것이다. 노벨학교의 폐쇄 조치를 볼 때 BPPE는 물론 각 학위인증기관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학교들은 심할 경우 폐쇄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따라서 남가주내 직업학교와 어학교는 물론 신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은 그들이 재학 중인 학교가 BPPE 등 각 교육국에서 마련한 학교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만약 성실히 수행하지 않다면 건강하게 학사운영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로 전락해야 한다.

특히 유학생의 경우 본인들의

답이 돼 비교적 저렴한 학비가 드는 한인신학교에서 학업에 몰두하고 있는 학생들이 불법적인 학교 운영에 희생양이 돼야 한다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그러나 불법학교들에서 배출된 학생들로 인해 한인교계가 영적인 하향평준화로 가게 되고 그것이 교인들의 교회 이탈현상으로 이어지는 거 같다. 특별히 다음세대들까지 이탈하게 되는 걸 보게 돼 안타깝다. 따라서 차라리 잘됐다"는 생각이 든다. 해당학생들에게는 안된 마음이 들지만 당국의 강도 높은 색출작업으로 건강한 교육환경이 자리 잡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6.25상기) 제15차, 워싱턴주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개최

메시지 "영성의 파급력과 통일영화의 필요" 윤학렬 감독(영화감독)

특별강연 워싱턴주 장로 성가탄

일시 2017년 6월 11일(주일) 오후 7시

장소 안디옥 장로교회 (권오국 목사)

TEL: (425)204-9191
ADDRESS: 4242 Jones Ave NE Renton WA 98056

6.25상기...강사에 윤학렬 영화감독 제15차 워싱턴주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6.25상기 제15차 워싱턴 주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가 오는 6월 11일(주) 오후 7시 안디옥 장로교회(담임 권오국 목사)에서 개최된다.

이번 구국기도회에서는 '영성의 파급력과 통일영화의 필요'라는 제목으로 영화감독 윤학렬 감독이 강사로 나서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

윤학렬 감독은 2017년 청소년들의 집단 따돌림에 대해 다룬 '지렁이', 2012년 '월가방 우수씨' 등 많은 작품들을 제작한 한국의 중견 영화감독으로 소위된 이들의 아픔과 감동적인 실화를 제작해 좋은

반응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

윤 감독은 한때 세상적으로 잘 나갔지만 주님을 만난 후 과거의 모든 영광과 세속적 가치를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화를 제작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는 자신이 메가폰을 잡은 'जू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의 복된 지향성도들의 간증서와 고현하는 전도사의 스토리에 큰 감명을 받아서 차기작으로 통일영화를 준비하고 있다.

(정리: 박준호 기자)

(8면에서 계속)

세상의 명문 대학원 졸업식은 아니라 해도 우리 학교의 졸업예배는 주님이 부르신 좁은 길을 묵묵히 걸기로 한 졸업생들을 위해 마

음 중심으로부터의 박수와 격려를 보낸 축복의 마음으로 가득한 귀한 시간이었다.

lpyun@apu.edu

한국 발전상, 뉴멕시코주 사회과목 지침 수록 이기철 총영사-뉴멕시코주 교육장관 면담서 합의

이기철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는 5월 26일 오전 뉴멕시코 주를 방문해 Hanna Skandera 교육장관과 면담 및 오찬을 함께 하고, 뉴멕시코주 사회과목 지침에 지난 60년간 한국의 정치, 경제 발전상을 수록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기철 총영사와 뉴멕시코주 교육장관이 한국의 발전상, 뉴멕시코주 사회과목 지침 수록에 관해 면담을 가진후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뉴멕시코주 교육부 청사에서 개최된 스칸데라(Skandera) 교육장관 면담은 지난 2월 10일 이기철 총영사가 뉴멕시코 마티네즈(Susana Martinez) 주지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한국 알리기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자 동 주지사는 이에 공감을 표시하고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스칸데라 교육장관과의 면담을 주선하면서 성사된 것이다.

이 총영사는 오늘 면담에서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80여개국 중에서 EU 국가 평균수준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국가라는 점을 국제

적인 자료로서 소개하고 △한국의 정치 경제 발전상을 사회과목 지침(역사부문에) 추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총영사는 한국의 발전상은 미국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한국의 발전은 6.25 전쟁시 미국의 지원과 그 후 원조에 힘입은 바 크며 둘째, 한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발전했으므로 한국의 성공은 미국의 성공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셋째, 잠정용사에 대한 경의의 표시로서도 이들의 한국 발전에 대한 기여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의 정치 경제 발전상은 미국 학

생들에게 여러 가지 소중한 큰 교훈을 준다고 설명하고 한국 발전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교육이라는 사실은 미국 선생님들에게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자부심을 줄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스칸데라 교육장관은 한국의 정치 경제 발전상을 높게 평가하고 이를 사회과목지침에 반영하는 것은 뉴멕시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는데 공감한 후 뉴멕시코주 교육당국은 한국의 발전상을 사회과목 지침 개정판에 포함하기 위해 주 LA 총영사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사회과목 지침은 2009년 마련된 것이어서 2018년 새로운 개정본이 발간될 예정이라고 하면서, 교육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사회과목 교

사 핵심멤버로 구성된 '워킹 드림 팀'에 한국의 발전상을 포함할 것을 적극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영사는 "금일 교육부장관과의 협의는 사회과목 지침을 관장하는 실무부처인 교육부의 최고 책임자로부터 한국의 발전상을 지침에 포함하는 절차를 추진한다는 약속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뉴멕시코주의 사회과목 지침 개정 시까지 교육당국과 지속적인 후속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네바다 주, 아리조나 주,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한국 발전상을 미국학교에서 교육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LA총영사관)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79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 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Campus Courses

2017 가을 학기 강의 안내

Sept 18-22(9월 18-22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 (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Sept 25-29 (9월 25-29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Research Design (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디자인)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om Stallter & Dr. Stephen Park

On Online Courses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Oct 9 - Dec 1(10월 9일-12월 1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Seoul, Korea

Oct 30-Nov 3(10월 30일-11월 3일)
DI Cross-Cultural Teaching and Learning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Nelson Jennings

Chicago, IL

Oct 23-27(10월 23-27일)
PM 8061 Pastoral Counseling(목회상담)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Kwanyik Lee(이관직박사)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동부교계 게시판



뉴욕교협 임시총회

변화와 개혁을 표방하는 43회기 뉴욕교회협의회(회장 김홍석 목사)가 헌법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6월 5일(화) 오전 10시30분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개최한다. 참석대상은 담임목사 1인과 평신도대표 1인(사모 제외).
▲문의: (718)279-1414

뉴욕침례교지방회 청소년연합수련회

뉴욕침례교지방회가 주최하는 청소년연합수련회가 "Challenge 2017" 주제로 7월 2일(주)부터 5일(수)까지 Pine Hill Christian Retreat Center에서 열린다. 강사는 다니엘김 전도사(로체스터 온누리교회 EM)이며 회비는 6월 15일까지 175달러(당일 185달러), 5-12세는 150달러, 5세 미만 무료. http://challengeregister.wix.com/challenge
▲문의: (917)699-6036.

우천으로 실내경기...배구 족구 진행 제 31회 뉴욕한인교회협의회 체육대회

제 31회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체육대회가 메모리얼데이인 28일 프라미스교회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다.

매년 뉴욕교협 체육대회는 플라싱 메도우 파크에서 개최됐으나 금년에는 우천을 대비해 갑자기 프라미스교회 실내체육관을 섭외해 진행됐다.

램프로 인해 일부종목이 취소됐다. 따라서 이날 진행된 종목은 배구와 족구로 축소됐다. 또 이번 체육대회는 교회 대항이 아닌 지역자치 행정위원회 주도로

진행됐다. 교협은 지역장과 총무들의 협조로 총 7팀이 참가해 열띤 경기를 펼쳤으며 50여 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해 경기 참여 및 선수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사회에서는 점심식사와 간식을 준비했으며 오찬은 김홍석 회장이 시무하는 뉴욕능기교회로 옮겨 바비큐 등 푸짐한 식사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회협의회 체육대회가 우천으로 프라미스교회 체육관에서 경기가 진행됐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5월 정기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퀸즈장로교회 러시아권 설립 1주년 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한마음으로 에벤에셀의 하나님 찬양 퀸즈장로교회 러시아권 설립 1주년 예배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지난 28일 러시아권 설립 1주년 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는 러시아권 회중 외에 본 교회의 한어권, 영어권, 중국어권 회중들이 모두 참여해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브루클린을 내이션스교회(담임 레오니드김 목사)와 엘림네이션스교회(담임 굴바라 목사)가 참석해 축하했다.

예배 말미에 축사를 전한 김성국 목사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린다"며 "천국에서는 열방이 모든 언어로 주님을 찬양할 텐데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그 천국을 체험하고 있다"고 말하고 "언어가 달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과 이만자라는 것은 똑같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러시아권 회중들이 고등부 예배실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 "예배환경이 불편해도 기도하는 대로 좋은 공간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퀸즈장로교회를 설립하고 40여 년간 이끌어온 장영준 목사를 소개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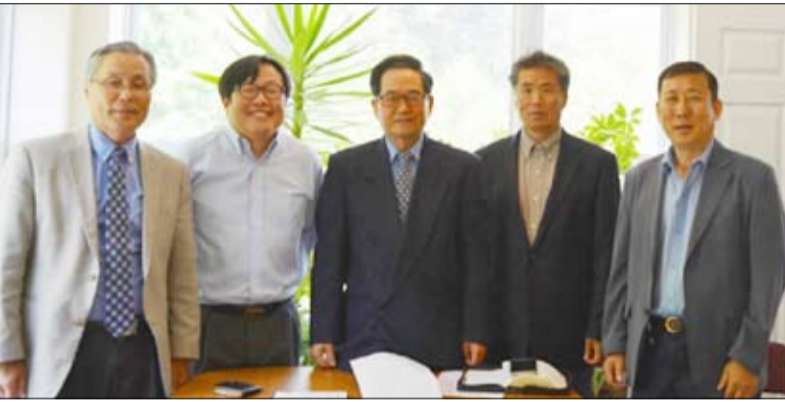
예배는 정길표 장로 인도로 경배와 찬양, 기도 레오니드김 목사, 성경봉독 블라지미르 란 형제, 찬양

찬양대, 말씀 송요한 목사, 축송 글로리아싱어즈, 헌금송 블라지미르 안 형제, 헌금기도 자리나 자매, 광고 윤지현 집사, 특송 G2G어린이 합창단, 축사 김성국 목사, 축도 김성국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러시아권 회중을 담당하고 있는 송요한 목사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삼상7:11-17)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여러 교회에서 모였지만 "한가족"임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인도로 퀸즈장로교회에 오게 된 것부터 1년간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일까지 해결해주시기를 감사했다.

송 목사는 "지난 연말 미국에 올 수 없었을 때 성도들의 기도로 오게 됐다"며, "영주권 신청 중인 어떤 자매가 자기의 영주권 안받아도 되는데 목사님은 꼭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말을 듣고 이 모든 일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했다.

한편 퀸즈장로교회는 다음날인 메모리얼데이에 전교인 한마음 축제를 벨몬트 레이크 파크에서 가졌다.
(유원정 기자)



남부뉴저지교협 신규 임원들이 기념촬영 했다

회장 전우철 목사, 부회장 이만수 목사 남부뉴저지한인교회 제 34회기 정기총회

남부뉴저지 한인교회협의회(회장 황의준 목사) 제 34회기 정기총회가 지난 26일 오전 11시 뉴저지 열방교회(담임 전우철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선출된 제34회기 임원은 아래와 같다.

△회장 전우철 목사(뉴저지 열방교회) △부회장 이만수 목사(뉴저지 여호수아장로교회) △총무 최무

람 목사(체리힐 새생전교회) △서기 박종옥 목사(사랑장로교회) △회계 백형원 목사(뉴저지 대한교회).

한편 남부뉴저지교협은 8월 27일(주)부터 29일까지 목회자 가족 수련회를 갖기로 결의했다.

남부뉴저지교협 산하에는 16개 교회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시니어선교한국 이시영 회장 뉴욕 방문 환영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선교보고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5월 정기예배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유상열 목사) 5월 정기예배가 지난 24일 오전 10시30분 뉴욕 참사랑교회(담임 은혜근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2대 회장을 역임했던 황영진 목사가 선교사로 파송된 엘살바도르 선교 보고를 했으며 이찬양 강사가 과테말라 방문 사역보고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박진하 목사 인도로 기도 김인한 장로, 설교 은혜근 목사, 축도 황영진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은혜근 목사는 "나눔과 영생"(눅18:18-30)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부자청년의 경우를 소개하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던지며 "영생은 실존적인 것 즉, 나눔"이라며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지 솔루션을 주셨는데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혜근 목사는 "순종=무동력" 전제하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김"에 대해 설명하고 "선한사마리아인

의 비유에서의 관심은 누가 이웃인가 아니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과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믿음은 열매로 나타나야 함을 강조하며 영생은 나눔과 돌봄, 책임적 배려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는 유상열 목사 사화로 진행돼 황영진 목사가 선교 보고했다.

황 선교사는 엘살바도르 선교 2년을 마친 간증을 하며, "가자마자 풍토병에 걸려 병원에 갔는데 의사와 대화하는 중 영어교를 열게 됐으며, 황은속 사모가 컴퓨터 교실을, 정민지실 배운 태권도를 가르치게 되면서 축구, 탁구, 합창교실 등으로 사역이 확대됐다"고 보고했다.

이찬양 강사는 지난 5월초에 방문한 과테말라(장경순 선교사부부) 선교보고를 했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는 이번 여름 지원 선교로 과테말라 깨찰테낭고 지역에 부뚜막과 화장실 설치를 하게 된다. 또 올해부터 아동후원사역이 시작돼 향후 본 기구 아동후원은 과테말라가 될 전망이다.
(유원정 기자)

시니어선교한국 이시영 회장 뉴욕방문 환영예배

시니어선교한국 이시영 회장 뉴욕방문 환영예배가 지난 27일 오전 7시30분 플라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열렸다. 뉴욕실버선교회(회장 김재열 목사)가 주최한 환영예배는 김경열 목사(뉴욕실버선교회 훈련원장) 사화로 기도 김영호 장로(뉴욕실버선교회 후원이사장), 환영사

김홍석 뉴욕교협 회장, 환영인사 및 감사소개 김재열 목사, 말씀 이시영 장로, 축가 김영환 테너, 광고 장충현 장로(시니어선교한국 사무총장), 축도 한재홍 목사(뉴욕실버선교회 이사장) 순서로 진행됐다.
(기사제공: 뉴욕실버선교회)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

뉴욕갯세미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01:30 수요저녁예배: 오후 08:00 새벽기도회: 오전 05:30 금요기도회: 오후 08:00 안락교회: 오전 9:30(토) Tel: (516)520-2004, mygod4@yahoo.com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www.nygetsemine.org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0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성회: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Tel: (718)361-9199, Fax: (718)361-9433 12-25 Clintonville St., Whitehouse NY 11357 www.moakyang.org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예배: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 Tel: (718)265-2584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www.kcb.org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718)886-1961, Fax: (718)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chungkiae@yahoo.com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Tel: (917)733-7387 45-16 162 St., #2F, Flushing, NY 11358 chungkiae@yahoo.com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637-1470 45-50 162 St., #2F, Flushing, NY 11358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없음), (917)73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순복음안다독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문)아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18)461-7835, CP: (718)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mitch.com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EM영어예배: 오후 1:30 화요성경공부: 오전 10: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50(월-토) Tel: (347)502-2571, Fax: (347)502-2570 210-10 Horace Harding Exp., Bayside NY 11364 http://nyccchurch.com/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3, 3주) 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2부예배: 오전 10:50 청년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수요 안락교회: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수요성경공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886-4040, Fax: (718)88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젊은이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30 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ny.org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3> <h1>하와이 및 북미 지역</h1>						

2017 여름성경학교 일제히 실시

남가주 지역 교회...6월2일-8월1일

남가주 지역 교회들의 여름성경 학교(VBS)가 6월 2일 토렌스조은 교회를 시작으로 8월 1일 베델한인교회 소망부까지 일제히 실시된다.

올해 각 교회 VBS주제는 'Maker You are God's Masterpiece',

'Make Fun Factory', 'Magnify Solving The Mystery of His Name', 'Galactic Starveyors' 등이다.

다음은 남가주 각 교회학교 VBS 일정이다.

(박준호 기자)

날짜	교회	문의
6/2-4	토렌스조은교회	(310)370-5500
6/8-10	한빛성결교회	(714)670-6778
6/9-11	또감사선교회	(626)233-4538
	선한목자교회 영아부	(626)913-6611
6/13-16	에브리데이교회	(818)832-6628
6/14-16	남가주사랑의교회	(714)745-7340
6/14-17	주님의영광교회	(213)749-4500
6/15-17	나성교회	(562)690-7979
	사랑의빛선교회	(626)744-9191
6/15-18	샌디에고한빛교회	(858)874-2412
6/15-16	LA복음연합감리교회	(323)641-0691
6/17	LA기쁨의교회	(213)351-9975
6/18-21	소중한교회	(714)990-9191
6/19-21	동양선교회	(213)421-7670
	(714)321-4780	
6/19-22	나성영락교회	(206)445-4527
	인랜드교회	(949)309-8329
6/19-23	오렌지한인교회	(714)871-8320
6/20-23	베델한인교회 유초등부	(949)854-4010
6/20-24	세리토스선교회	(562)402-2919
6/21-24	LA사랑의교회	(909)802-0580,
	(213)500-8330	
	나침반교회	(714)277-6250
	생수의강선교회	(949)545-1421,
	(213)272-6253	
	선한목자교회 유치부, 아동부	(626)913-6611
	안디옥장로교회	(213)220-7417
6/22-24	웨스트힐장로교회	(818)884-2391
	유니온교회	(626)858-8300
	은혜한인교회	(714)446-6200
	충현선교회	(818)549-9191
6/23-25	LA연합감리교회	(310)645-3699
6/26-29	얼바인침례교회	(949)857-9425
6/26-30	주님세운교회	(213)925-6516
	주님의영광교회	(213)749-4500
6/27-30	감사한인교회	(714)521-0991
	베델한인교회 유아유치부	(949)854-4010
	선한침지기교회	(626)913-6611
6/27-7/1	밸리연합감리교회	(818)366-0089
6/28-30	남가주기쁨의교회	(310)326-0300
6/29-30, 7/1	대흥장로교회	(213)703-3060
7/10-14	남가주주님의교회	(626)858-8300
7/11-14	샌디에고갈보리장로교회	(858)278-3210
7/12-15	나성금관교회	(310)973-5106
7/20-22	오렌지힐교회	(714)633-3104
7/20-23	남가주든든한교회	(213)481-2779
8/1-4	베델한인교회 소망부	(949)854-4010



한인가정상담소가 실시한 오픈하우스에서 심리상담부서 직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자가진단 코너, 카운슬러 면담 등 한인가정상담소 가정의 달 오픈하우스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정조)가 2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오픈하우스를 개최했다. 이번에 실시한 오픈하우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인들을 상담소로 초청, 심리상담부서에서 마련한 현재 마음상태나 스트레스 취약 정도 등을 아이패드로 자가진단 해볼 수 있는 코너를 마련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에 있는 카운슬러와 면담을 하는 시간도 가졌다.

가정폭력 예방부서는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춰 부부나 연인이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점검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가족 안에서나 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소개하고 이 관계가 건강한 관계인지, 위험해질 수 있는지 맞추는 게임을 하기도 했다.

어린아동 프로그램은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건강식이나 건강한 운동법 등을 안내하며 여름방학을 앞두고 가족이나 어린이들에게 적합한 영양식 메뉴와 아이들과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액티비티들도 소개했다. 이외에 위탁가정 프로그램 담당 부서에서는 '동지찾기' 프로그램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나눴다.

(박준호 기자)



LA카운티 정신건강국 세미나가 미주평안교회에서 열렸다

'...우울증 원인 증상 대처' 주제 LA 카운티 정신건강국 세미나

LA 카운티 정신건강국 세미나가 25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열렸다.

'마음의 감기' 우울증 원인, 증상, 대처'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강사로 나선 안정영 선생은 "우울증은 미 전체 인구의 6.8%가 앓고 있으며 우울증 환자중 6.8%가 당뇨병 질병을 앓고 있다. 또한 우울증은 암과 심장질환보다 더 높은 질병율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선생은 "우울증은 남자성인 2.75%에 해당되는 3백만 명이 앓고 있으며 우울증환자중 남성이 여성보다 자살율이 2배 높다"고 말했다.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장 정지윤 목사)은 제 34주년 기념축하 및 28집 출판기념회를 20일 오전 10시 작가의집에서 가졌다.

김학정 이사 사회로 열린 예배는 김신영 목사가 기도했으며 마가렛 리 자매가 특송을 방독심 목사가 '복있는 자(사1:1-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송택규 목사(로드랜드 대학교 부총장)가 축도했다.

이어 열린 문학특강은 정종진 시인이 강사로 나서 '문학과 생활'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강연에 이어 시상식을 가졌는데 시인 최선호 목사와 음악선교사 진

서부교계 게시판

효사랑 시니어 대학 졸업식
효사랑선교회(대표 김영찬 목사)가 운영하는 효사랑 시니어 대학 졸업식이 6월 3일(토) 오후 3시 놀곶에 위치한 제일침례교회에서 갖는다.
▲문의: (562)833-5520, 569-1180

미주 제30차 신약성경통독집회
미주 제30차 신약성경통독집회가 할리웃효순장로교회(담임 김동원 목사, 1101 S. Elden Ave, LA)에서 오는 6월 17일(토)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열린다. 교역자, 선교사, 평신도, 학생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집회의 참가비는 무료.
▲문의: (213)268-3689

OMC 자녀교육세미나
동양선교회회가 주최하는 OMC자녀교육세미나가 6월 9일(금)과 11일(주)에 열린다. 일정은 9일(금) 오후 6시30분 본 교회 카페 1호실에서 '부모의 분노조절과 효과적인 대화법'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안희미 카운슬러가 강사로 나선다. 그리고 11일(주) 오후1시 분교회 교육관 4층에서 '우리 자녀 성교육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로렌권 카운슬러가 강의한다.
▲문의: (323)466-1234

월드미션대학교 26회 학위수여식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송정명 박사)제 26회 학위수여식이 6월 3일(토) 오후 1시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213)388-1000(Ext.121) 사무처장 임종호 목사

미주장신대학교 제37회 학위수여식
미주장신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는 제37회 학위수여식을 3일(토) 오전 10시 가나안교회(담임 이철 목사)에서 갖는다.
▲문의: (562)926-1023



LA카운티 정신건강국 세미나가 미주평안교회에서 열렸다

미주크리스찬문인협 제34주년 기념축하 제28집 출판기념회도 겸해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회장 정지윤 목사)는 제 34주년 기념축하 및 28집 출판기념회를 20일 오전 10시 작가의집에서 가졌다.

김학정 이사 사회로 열린 예배는 김신영 목사가 기도했으며 마가렛 리 자매가 특송을 방독심 목사가 '복있는 자(사1:1-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송택규 목사(로드랜드 대학교 부총장)가 축도했다.

이어 열린 문학특강은 정종진 시인이 강사로 나서 '문학과 생활'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강연에 이어 시상식을 가졌는데 시인 최선호 목사와 음악선교사 진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인대학: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 오전 5:30(월-금)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9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5부예배: 오후 11:30 수-금요일: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gusa@yahoo.com / www.lafgc.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주일 6부예배: 오후 2:30(청년)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정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통도일: 오전 6:30 EM, 대령회: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srscsa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주일 4부예배: 오후 1:20 영양회(월-금): 오전 7:30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저녁 6:00(월-토)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kpc.org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흠뻑 있는 우리의 종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일: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Tel: (213)559-7728 (전환: 팩스: 김용),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미주양광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월요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부: 오후 1:45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www.mpcia.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오후 8:00 주일 학교: 오전 5:45(월-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효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영아예배: 오후 1:30(수요일),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E-mail: bel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7:00(대형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새벽 (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1400 Alvarado Terrace, L.A., CA 90006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St., Irvine, CA 92604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다문화)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통도일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침례: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제기도회: 365일 24시간 www.gracem.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50(월-토) 성령침례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minchurch.com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ic.org	좋은마음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학교: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www.socalssunshinechurch.org Tel: (714)646-9259 Fax: (714)646-9264 16800 Immpervy Hwy, Yorba Linda CA 9286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corneston.tv / e-mail: pastor@aconerstone.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성, 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성)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청년) 침례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www.torancec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59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9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기성 새 총회장 신상범 목사 제111차 총회...부총회장 윤성원 목사

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24일 경기도 부천시 서울신대에서 제111년 차 총회 임원선거를 갖고 신상범(인천 새빛교회) 목사를 총회장, 윤성원(서울 삼성제일교회) 목사를 목사부총회장에 선출했다. 3차 투표까지 가는 총무선거에선 김진호 현 총무가 문창국 안산단원교회 목사를 79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신 총회장은 “사중복음의 성결교회 정체성을 확립하고 복음주의 영성을 회복하겠다”면서 “특히 다음세대의 부흥과 작은 교회 지원에 힘쓰고 교단의 화합과 헌법질서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부총회장은 “교단의 긍지를 높이고 균형성장에 주력하겠다”면서 “조금 늦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 교단의 기본과 원칙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장로부총회장에는 이봉열(영음

성결교회) 장로가 당선됐으며, 서기에 남창우(예산 여리교회) 목사, 부서에 조영래(보령 한내교회) 목사가 각각 선출됐다. 회계는 김정식(신마산교회) 장로, 부회계는 김영록(서울 청량리교회) 장로가 총대들의 선택을 받았다.

732명의 총대들은 헌법개정안 논의에 들어가 전도사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렸다. 원로장로는 추대기준을 ‘20년 이상 근속·시무한 자’에서 ‘18년 이상 근속·시무한 자’로 조정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교회의 재산권 분쟁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지방회 내에 교회재산관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김원교 목사)는 이날 경기도 안양시 성결대에서 제96회 정기총회를 폐막했다. 총대들은 다음세대 교역자 양성을 위해 세례교인 1인당 일정

액을 현금하는 ‘다음세대 교육의무금’ 제도를 통과시켰다. 교단 100년사를 편찬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키로 했으며, 해외선교 40주년 선교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총대들은 이날 이혼한 전도사의 목사 안수건을 놓고 장시간 논쟁을 벌였으며 안수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신학 전공 전 이혼전력은 문제 삼지 않기로 했으며, 신학 전공 후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불허하기로 했다.

성결신학원 이사과 감사 선정은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했다. 성결신학원 이사장에게 내려진 면직결정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해벌요정 시 총회 화합차원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총회는 조만간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교사 600여명 한자리에...복음의 열정 회복 여의도순복음교회 세계선교대회

전 세계 64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 600여명이 선교 사명을 점검하고 영적으로 재충전하기 위해 고국인 한국을 방문했다.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가 파송한 이들은 24일 서울 여의도 교회 대성전에서 열린 ‘제43회 순복음세계선교대회’에 참석했다. 대회는 (재)순복음선교회 주최하고 여의도순복음교회 선교사역국이 주관했다.

예배에 앞서 선교사들은 파송지역 핏말을 앞세우고 등장했다. 순복음아프리카총회 정병성 선교사 등 18명이 앞장섰다. 성도들은 큰 박수로 환영했다.

이영훈 목사는 ‘복음의 증인’이란 설교에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하셨는데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성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 교회로 쓰임 받는 것은 성령의 역사 때문”이라며 “오직 성령이 임할 때 부흥한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선교사들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 말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

조용기 원로목사는 ‘권면의 말씀’

을 통해 “여러분은 성령이 불러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하나님 사역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깨닫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교사는 참으로 어려운 생활을 한다. 이를 하나님이 알아준다”면서 “선교사는 환경을 보지 말고 오직 성령을 바라보아 한다”고 강조했다.

순복음대만총회 총회장 장한업 선교사는 세계 선교 사역과 고난 받는 선교지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

했다.

이날 오후 3시에는 경기도 파주 오산리최자실기념공식기도원에서 ‘선교사비전센터’ 준공식을 가졌다. 이곳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한 2층 선교관으로 선교사들이 묵을 수 있는 방 22개를 갖췄다.

선교사들은 준공식에 이어 파주 영산수련원에서 2박3일 일정으로 수련회에 들어갔다. 이 목사와 한기재(서울 중앙성결교회) 목사, 마원석(미국 오탈로버츠대학교) 교수가 특강을 한다. 지역 총회별 전락회의도 한다. 26일에는 여의도순복음교회로 다시 이동해 ‘선교사와 함께하는 미스바 기도회’에 참석한다.

존 파이프 목사,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설교

수원중앙침례교회(고명진 목사)가 지난 28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세계적인 복음주의 설교자 존 파이프(John Piper)목사를 초청해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집회에는 수원중앙침례교회 1만 여명의 성도들이 참석했다.

존 파이프 목사는 ‘세상의 고통과 하나님의 뜻(The Pain of the World and the Purpose of God)’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며 “이 땅에 의미 있는 것은 없지만 인간인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우리 내면의 죄악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생각하며, 고통이 하나님의 보배로움을 표현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명진 목사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범사에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강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명을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라”고 축복했다.

여축제 조직위원장을 상대로 고발장까지 제출했다.

주부 이신희(41·여)씨는 “지난해 귀어축제를 막기 위해 서울광장의 사용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달라며 9만1000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개정청구를 제출했다”며 “올해도 불건전한 행사를 막기 위해 조례개정청구 서명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위 의견 수렴 후 결정

서울시는 다음 달 초 개최 예정인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의견 수렴 후 수리여부를 결정한다. 광장운영위에는 이선우 한국

서울시, 귀어축제에 입장 변화...

서울광장 사용 불허할까

서울시가 동성애자들의 불건전한 행사인 귀어축제와 관련해 예년과 다른 입장을 밝혔다. 학부모 단체는 조례에 따라 귀어축제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불건전한 귀어축제 또다시 열리나

서울시는 “오는 7월 15일 서울광장에서 귀어축제를 열 수 있게 해 달라”는 동성애자들의 요구에

라며 조례개정청구를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년에도 동일한 사유로 조례개정청구를 위한 주민서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사용수리에 대해서도 일부 시민이 민원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입장변화 가능성 내비친 서울시

공문에서 서울시가 입장변화의 가능성을 내비친 부분은 ‘불

귀어축제 측 “7월 15일 광장 쓰게 해달라”에 “불건전성 등 논란...의견 수렴 후 결정” 통보

대해 “불건전한 동성애 행사를 막아달라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의견수렴 후 수리여부를 통보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지난 2년 간 서울시는 동성애자들의 서울광장 사용신청에 대해 별다른 반대 입장 없이 사용을 승인해 준 바 있다.

서울시는 최근 귀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에 보낸 ‘서울광장 사용수리 통보요청에 대한 회신’(사진)에서 “귀어축제위가 2015~2016년도 서울광장에서 개최한 귀어축제와 관련해 시민 9만1000여명이 ‘서울시가 서울광장에서 불건전한 행사의 허가를 막고 책임 있는 업무를 해 달

건전한 행사’와 ‘시민 9만1000명이 제출한 조례개정청구’ ‘민원을 제기하는 등 논란 지속’ 문구다. 서울시가 이제는 귀어축제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저항을 인지하고 부담감을 갖게 됐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울광장은 시민의 건강안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이라고 나와 있다. 그러나 귀어축제위 측은 행사를 여는 동안 술과 성기모양의 과자, 자위도구, 성행위 사진 등을 판매했다. 행사 때 동성애자들은 반나체로 광장을 활보했다. 참다못한 일부 시민은 2015년 귀

방송통신대 교수와 유성희 YWCA 사무총장, 이명희(비례) 박호근(강동구) 남창진(송파구) 박운기(서대문구) 시의원 등 13명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자문역할을 할뿐 최종 결정권한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있다.

김지연 차세대바보세우기학부모연합 대표는 “조례에 따르면 박 시장은 서울광장을 시민의 건전한 문화 활동 공간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다”면서 “2년간 불건전한 귀어축제의 부작용이 명백하게 드러난 만큼 박 시장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승동교회, 기독교역사사적지 제1호 지정 예매

초기 개신교 대표적 건축 3·1운동 전개 역사적 장소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역사위원회(위원장 김정훈 목사)는 24일 저녁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승동교회(박상훈 목사)에 대한 한국기독교역사사적지 제1호 지정 감사에예배를 진행했다. 예장합동은 지난해 제101회 총회에서 역사위원회 회의를 청원으로 서울 승동교회와 김재 금산교회에 대한 총회역사상 첫 한국기독교역사사적지 지정을 결

의했다.

이날 예배에는 총회임원, 역사위원회 위원, 승동교회 성도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장차남 전 예장합동 총회장은 설교에서 “신앙 선조들의 헌신을 돌아보고 그 역사를 미래에 자양분으로 삼는 것이 뿌리의식을 가진 오늘의 신앙인들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예배 후에는 총회역사위원회 서기 함성의 목사의 사회로

한동대, 국내 대학 최초 동성애·동성결혼 반대 천명

한동대학교(총장 장순홍)가 지난 25일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반(反) 성경적’이며 ‘반 기독교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내 대학에서 동성애와 동성결

혼을 반대하는 선언문을 공개적으로 밝힌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동대는 ‘동성애와 동성애 결혼에 대한 한동대학교의 신학적 입장’이란 제목의 선언문을 통해 동성애 행위가 성경적 진리와 윤리관에 반

기감 동성애대책위원회 출범...계몽 회개 목적

동성애 문제 성경적 답변 제시, 군 동성애합법화 저지도 논의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전명구 감독회장) 동성애대책위원회(위원장 윤보환 감독)가 지난 25일 출범했다. 기감 동태위는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와 정죄가 아니라 그들을 계몽하고 회개토록 함으로써 성경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목적인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한국사

회가 동성애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성경적 답변을 제시할 방침이다. 목양적·신약적 고민 해소의 물꼬를 터주는 한 혐오와 정죄가 아니라 그들을 계몽하고 회개토록 함으로써 성경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목적인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한국사

교계,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움직임 활발

새 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분위기

새 정부 출범 이후 그동안 가로막혔던 남북 교류가 빠르게 재개되고 있다. 대북 지원을 해왔던 일선 단체들은 2010년 ‘5·24 대북조치’ 이후 경색됐던 대북 지원 활동이 단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독교계도 교단과 교회 연합단체들을 중심으로 북한 접촉 승인 신청을 서두르고 있다.

기독교계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통일부에 접촉 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조그련)과 교류해 온 NCCK는 남북 승인을 받으면 실무진과 회원교단 대표 20여 명이 참여하는 방문단을 꾸릴 예정이다. NCCK는 2014년 이후 남북교회 공동기도회 등 북한 교회와의 인적 교류를 하지 못했다. 대신 부활절 기도문 공동작성 등 제한적 차원에서 교류하며 조그련과 관계를 이어왔다.

북한을 지원하는 국내 5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대북협력 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도 최근 회의에서 10여개 회원단체가 통일부에 접촉 승인을 냈다고 보고했다. 통일부도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19개 민간단체가 접촉 승인 신청을 냈다고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했다.

북민협 회원단체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사회봉사부 이형재 간사는 “그동안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조차 쉽지 않았는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접촉 승인을 받아 남북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그동안 단절됐던 남북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2007년 12월 4일 평양에 착공한 뒤 현재 잠정 중단된 ‘조용기심장전 문병원의 공정을 검토하기 위해 여의도순복음교회도 남북교류 추이를 살펴 북한 접촉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순복음교회 홍보국장 음한국 목사는 “5·24 대북조치 이후 찾지 못했던 조용기심장전 문병원을 방문하기 위해 북한 접촉 신청을 할 예정이지만 정확한 시점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남북을 염두에 둔 대북 접촉 신청이 늘어난 것은 남북 간 긴장완화와 화해를 바라는 심리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지난

“교회 세무조사는 없도록 하겠다”

종교인 과세 유예 추진...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 대표 발의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교계 안팎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종교인 과세 제도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로 활동하던 지난 2월, 대선 캠프 내 기독교 담당 총괄 책임자였던 김의원이 교계 행사 등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여야 기독교의원 30명 가까이 개정안에 찬성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세법 개정안(종교인 과세 2년 유예안)은 간단하다. 종교인 소득을 세법상 ‘기타소득’ 항목에 추가하도록 해 구간별로 6~38%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토록 한 현행법의 시행 시점만 ‘2020년 1월 1일’로 바꾸는 것이다. 현행법은 ‘2018년 1월 1일’로 돼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

사적지 지정증서 증정, 축사, 헌관 제막식이 차례로 진행됐다.

승동교회는 1893년 미국선교사 사무엘 무어 목사가 설립한 교회로 1910년 건축이 시작돼 1913년 헌당식을 가졌다. 붉은 벽돌을 이용한 양옥 건물로 초기 개신교 교회당의 대표적인 건축물로 인정받고 있다. 3·1운동 당시 전국의 학생대표들이 모여 태극기와 독립선언문을 나눠 주고 만세운동을 전개했던 역사적 장소이다. 2001년 서울시로부터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130호로 지정됐으며, 한국교회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역사관도 마련돼 있다.

한다고 천명했다.

또 문화 안의 대세보다 성경의 계시를 기준으로 삼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성애 행위가 근본에서 인간 개인과 공동체에 해와 병을 가져옴을 믿는다, 동성애로부터 치유되도록 인도하는 것이 참 인권보호임을 믿는다고 선언했다.

다.

위원회는 첫 사업으로 타 교단 동성애대책위, 시민단체 등과 연합해 동성애 확산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매년 열리는 서울 동성애자 축제 모임에 앞서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지역교회마다 활용할 수 있는 동성애 대처 책자도 발간해 배포하기로 했다. 중부연회 감독인 윤보환 위원장은 “목회적 차원에서 동성애에 대한 해답은 성경임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강경희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인도적 지원은 인간의 고통을 대하는 인류 보편의 가치이므로 정치적 고려와는 별도로 해야 한다”고 말해 북한과의 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남북 교류 확대에 대한 청신호가 켜졌지만 북한이 지속적으로 미사 일 발사 실험을 하고 있는 현실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크다. 박영환 서울신대 한국기독교통일연구소 소장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해 온 대북 지원의 과정과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시정책조를 줄여야 한다”며 “노인과 어린이, 여성을 돕는 인도적 지원은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지만 북한에 공장을 세운다거나 농사정부를 전수하는 등의 인프라 구축은 정부의 몫이라고 국제 사회와 비조를 맞추며 시간을 두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또 대북 지원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수봉 기독교북한선교회 사무총장은 “교회의 인도주의적 지원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랑의 실천”이라면서 “무엇보다 지원의 결과는 북한이 대화의 자리로 나오도록 이끄는 것에 있는 만큼 지혜로운 지원과 교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에 과세 당국인 국세청과 과세 대상인 종교계간 협의 필요성을 김 의원은 강조했다. 우선 국세청이 각 종교, 종단 등과 협의를 통해 종교인 소득에 포함되는 다양한 소득 원천과 지급 방법에 대해 상세한 과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A교회 목회자가 해외 선교사역을 위해 거액을 기부했다면 이를 비용으로 구분해야 할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방안에 대한 교계 입장은 엇갈린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 5개 기독교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평 과세로 국민통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과세 유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국교회교단연합과세대책위원회 등은 종교인 과세 자체에 대해 백지와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말 한국기독교언론포럼이 개신교인 1,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는 ‘차기 대통령이 다뤄야 할 한국교회 최우선 과제’로 종교인 과세(26.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선교의 창 (79)

백 투 예루살렘 운동(傳回耶路撒冷運動)에 대한 생각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Ph.D)

언제부터인가 선교계에 '백 투 예루살렘 운동(back to Jerusalem Movement)'과 더불어 '복음의 서진'이라는 구호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기독교 2,000년의 선교 역사를 돌아보면 복음은 서진화 한 것이 사실이다. 일찍이 복음의 서진은 사도 바울로부터이다. 그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던 중 환상(행16:9)가운데 마케도니아인이 나타나 아드리아해를 건너 유럽 땅으로 건너 오라고 했다. 이로서 유럽 선교가 시작된 것이다. 이 복음은 북미주를 거쳐 한국에 왔고 지금은 중국과 중앙아시아에 접화되고 있다. 이러한 선교의 물줄기 가운데서 복음은 오대양 육대륙으로 확장되어 왔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기독교 교회는 주된 선교적 과제는 무엇인가? 저 하말라야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이 과업의 완성이 예수의 재림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백 투 예루살렘 운동의 신학적 쟁점(ISSUE) 본 운동의 주된 이슈는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복음이 계속 서진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예루살렘은 복음의 출발지이자 종착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복음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인 예루살렘에 재림하실 터인데 그 재림의 때가 복음의 힘찬 서진운동으로 인하여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운동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구약의 다윗의 왕국처럼 지리적·현통

할 최대의 과업적 땅이다. 따라서 중국 가정교회는 신앙과 지정학적 위치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선교적 부담을 갖게 된 것이다. 문제는 한국을 비롯한 밖에서 곁가지처럼 여타 단체들이 B.T.J. 구호를 도용하고 내용을 변조하며 선동적으로 사람을 동원함으로 인하여 문제가 야기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중국교회가 선교적으로 바르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세우는 역할이 필요하다. 생각해보라. 만일 저들마저 서쪽 고지를 향한 선교의 손을 놓는다면 누가 이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저들은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급 자원임에 틀림없다. 선교의 주체이신 성령께서 저들을 통해 큰일을 하실 것이다.

백 투 예루살렘 운동은 중국 가정교회에서 시발했다. 이는 종말론적 시각에서 본 선교전략의 일환이다. 우리는 세계선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협력함이 마땅하다.

산처럼 높고 험준한 힌두권과 이슬람권을 선교하는 것이다. 만일 이곳에 복음의 터가 확실히 구축되면 예루살렘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은 시간문제라 될 것이다. 중국의 가정교회는 일찍부터 여기에 부담을 안고 있었다. 그 교회가 주창한 백 투 예루살렘 운동은 깊은 신학적 통찰보다는 순수한 선교적 열정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몇몇 선교단체들이 이 구호를 도용하고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데서 비판적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이 참에 우리는 세계선교의 큰 흐름 가운데 하나인 B.T.J. 운동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만일 이것이 세계선교를 향한 성령님의 운행하심이라면 우리 한인교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이 마땅하다.

적 이스라엘 회복에 기초한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교회는 이 땅의 세속 정부들에게 친 이스라엘 정책을 펼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조는 결국 아랍권을 크게 자극하는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결국 혈과 육의 싸움에 휘말릴 수 있게 된다. 계시록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이필찬 교수에 의하면 B.T.J. 운동은 예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다는 가장 감동적인 시나리오이며 마치 수학 공식처럼 재림의 때를 예측하게 하며 많은 사람을 자극해 잘못된 선교 활동으로 이끌게 된다고 했다. 이는 "문자적 해석에 기초한 잘못된 성경 해석" 때문이라고 한다.

실크로드와 복음의 서진 세계 선교의 판도는 이제 서구 중심에서 비서구권으로 중심이동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의 교회는 선교 대상국이 아닌 지원국으로 변모하고 있다. 서방교회는 이슬람 세계에 갖고 있는 역사적, 정치적 핸디캡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백 투 예루살렘 운동은 중앙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까지 연결된 실크로드를 따라 분포되어있는 무슬림 민족들을 타깃으로 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임에 틀림없다.

백 투 예루살렘 운동의 유래 이 운동은 1920년대에 중국교회에서 싹트기 시작하였다. 1949년 중국 공산당의 집권 하에서 수십 년간 잠복하게 되었다. 그러나 문화혁명과 천안문사태 후 중국이 서서히 개방되자, 이러한 운동도 다시 힘을 받게 되었다. 이 B.T.J. 운동은 2003년부터 국제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더욱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본 운동은 중국에서 이스라엘까지 10/40장의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국가를 복음화 시키려는 중국 가정교회의 선교운동이다. 즉,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과 예루살렘 사이의 온 나라와 도시, 마을, 그리고 종족에 복음을 전파하고 기독교 공동체를 설립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이라고 믿는다. 이 운동의 지도자들은 중국에서 10만 명의 선교사를 51개국에 보낼

중국교회의 B.T.J.운동에 대한 선교적 시각 원래 이 운동은 중국 가정교회의 지상명령에 대한 선교적 열심에서 나온 것이다. 여기에는 깊은 신학적 통찰이 전제된 것은 아니었다. 저들은 혈통적 유대인의 회복과 친 이스라엘 정책에 별로 관심이 없다. 오직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응하며 세계선교에 중심 역할을 하기 원한다. 만일 저들이 위에서 언급한 세대주의적 사관과 신학적 쟁점에 동조한다면 당연히 질타를 받아야 한다. 잘 알다시피 중국은 힌두권과 이슬람권을 국경으로 접하고 있다. 인접국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언어와 문화, 종교적 풍습을 가진 거주민이 살고 있다. 이들은 복위 10/40에 있으며 실크로드가 관통하는 길이다. 중국과 예루살렘을 잇는 수 많은 나라들은 복음의 불모지이며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곳이다. 이곳은 선교적으로 돌파해야

중국교회가 성장하면서 현재 1920년대 중국 교회의 비전이었다면 복음의 서진운동인 백 투 예루살렘 운동이 새롭게 부활하고 있다. 현재 중국교회의 주류를 이루는 가정교회의 특징은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라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무슬림 선교를 위해 큰 자산이 아닐 수 없다. 실크로드를 따라 선교의 대상이 되는 종족들을 위한 선교 환경도 유사하다. 이렇게 역사와 문화의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실크로드는 최근 들어 급속히 부상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정부의 야심찬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and One Road, B&R)계획 때문이다. 이는 중국과 유라시아 국가들을 연결하는 경제 벨트의 길다. 이 구상은 육지기반의 실크로드와 다른 하나는 해상기반의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계획이다. 중국의 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일대일로 계획은 지구상 인구의 63%에 해당하는 44억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길이 복음의 대로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14면으로 계속)

알아두면 좋은 미국의 결혼식 절차 (2)

- 캘리포니아주의 2종류 결혼방식 -

LA 카운티에서는 Public Marriage(PM, 수수료 90달러)와 Confidential Marriage(CM, 수수료 85달러)가 있습니다.

다른 점은 PM은 반드시 2명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CM은 한 시간이라도 같이 살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잘 모르는 부분은 라이선스 신청 시 15달러를 더 내고 증명서(Certificate)를 따로 신청해야만 정식 결혼증명서(Marriage Certificate)를 6-8주 후에 카운티로부터 우편으로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 안하면 결혼한 기록은 카운티와 주 정부에는 등록되지만 결혼증명서가 필요할 때 받을 수 없습니다.

보통 PM의 경우 카운티에 결혼식 하는 채플이 있으니 채플에서 결혼 신청과 주례자 또 증인 2 사람 함께 카운티 결혼사무실에 신청하면 됩니다(바쁠 때를 고려해서 예약이 필요합니다). 그 비용도 추가로 내면 그곳에서 결혼식 할 수 있는 채플과 주례자가 정해집니다(주례자 사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같이 간 친구나 친지 2명이 증인 사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결혼 경비나 개인 사정 혹은 종교적인 문제가 있다면 카운티 채플에서 결혼식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국에 나가서 결혼식을 올린다가나 일반 교회나 절 혹은 회당, 야외에서 결혼식을 할지라도 이곳에서 먼저 결혼식을 하면 비용도 저렴하게 들고, 법적인 결혼서류가 100% 완전하게 만들어져서 영주권 신청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이때에 서로 결혼반지와 꽃을 교환하고 친구나 증인들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한 많이 찍으면 훗시 나중에 이민국 영주권 신청 시 필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정부 카운티에서 하는 결혼식이고 거기서 작성된 서류여서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주례자와 Authorized Notary 즉 카운티에서 인정한 결혼공증인 사인을 꼭 받아야 합법적인 결혼이 인정됩니다.

△참고사항: 주정부 공인 공증사(Notary Public)와 카운티 공인 결혼 공증사(Authorized Notary)는 다릅니다.

결혼 증명서 신청 자격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결혼 허가를 얻으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양 당사자는 함께 출석하여 "신분 증명" 및 연령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진 및 연령 확인은 필수



유홍호 목사

항목입니다.

2. 모든 서류는 영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른 언어로 된 문서는 공인된 번역가가 번역한 영어 번역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번역은 반드시 공증 받아야 합니다. 시효가 지난 문서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3. ID는 •유선면허증 •여권 •외국인 거주자 카드

4. 조건 및 필요한 서류

• 당사자는 미혼이어야 합니다. 이전 결혼은 이혼 마지막 날까지 유효합니다.

• 지난 2년 이내에 이혼했다면 이혼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최종 이혼이 2년이 넘었을 경우, 서면 증빙은 요구되지 않지만 결혼면허가 신청 시 반드시 최종 이혼일자 기재되어야 합니다

• 주 등록 동거 당사자는 지난 2년 이내에 동거가 끝났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동거가 끝난 지 2년 이상인 경우, 서면 증빙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결혼 면허를 신청하는 동시에 동거가 끝난 날짜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같은 파트너와 결혼한 당사자(각자가 주 등록 국내 파트너십에 해당 당사자)는 주 등록 동거 선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배우자로 함께 동거하고 있는 당사자는 기밀(개인) 결혼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 결혼은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 결혼증명서를 신청할 때 혈액검사와 건강진단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CA 거주 또는 미국 시민권 자격 요건은 없습니다.

△18세 미만의 결혼증명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공증된 학부모 동서 또는 보호자 동의서와 결혼증명서를 얻기 위해 주 고등법원의 미성년자 결혼허가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수감자 결혼: 수감자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213)343-7849로 문의하시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p>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 오전 6:00(토)</p> <p>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222-0691, 267-471-7777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vchurch.org</p>	<p>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열 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p>	<p>벨앨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성령):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llevuechurch.org</p>	<p>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회: 오후 8:00 우치, 유년, 종교대학: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p> <p>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linton, MA 01748</p>	<p>샬럿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8:00 우치, 유년, 청년대학: 오전 10:45 /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p> <p>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nk Road, Charlotte, NC 28209</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오후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금) / 토요일: 오전 6:30</p> <p>Tel: (206)527-0981, Fax: (206)524-9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seattle.org</p>	<p>안다목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702)749-9929, Fax: (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vchurch.org</p>	<p>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501)920-9049, 사해: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hs.com</p>	<p>앵커리지벨리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http://www.bellevuechurch.org</p>	<p>엘파소열리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아)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p> <p>Tel: (915)755-1490, 사해: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p>	<p>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부흥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717)542-0288, Fax: (717)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킬린오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p> <p>Tel: (254)634-8705(H), (254)501-4933(C) 1000 E. Veletranz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p> <p>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us Rd., Richmond, VA 23225</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아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15분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 찬양: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월-토)</p> <p>Tel: (253)536-6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lacmcrc.com</p>	<p>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원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j.org</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살아있는 선교하는 사람들” 미주한인예수장로회 2017 선교대회

미주한인예수장로회(KAPC, 총회장 유재일 목사) 제 41회 총회가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은혜 가운데 마치고 되었다. 41회 총회에서 총회장으로 선출된 유재일 목사가 시무하는 열린문

교회에서 총회에 이어 주일 선교대회를 “살아있는 선교하는 사람들”이란 주제로 진행했다. 최갑렬 선교사는 “그 몇 사람을 통하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선교보고를 했다. 중미 멕시코

에서 선교하는 김재학 선교사의 선교 보고가 있었으며, 공재남 목사가 “캐나다 원주민 선교”에 대한 강의로 원주민 선교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금태 선교사(파라과이)와 정정연 선교사의 선교 보고로 참석자들은 도전과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기사제공: KAPC)

선교 편지

브라질

브라질은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전국적으로 현 대통령 데메르를 몰러가라고 교동을 마비시키고 시내버스를 태우는 격렬한 데모들이 각 곳에 번

은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4월 20-22일 선교사들이 세운 장로교회들이 수자노 라는 도시 “사또” 수양관에서 90여명이 참가하여 영적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감뎀림교회회는 개인적인 사정들이 많아 22일 하루만 참가를 하였습니다. 수련회중 막간을 이용해 저희 부부는 결혼 31주년 축하를 성도들로부터 받았습니

부활절 감사예배

4월 16일 현지교회들은 부활절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린이들이 준비한 “그리스도의 수난”을 통해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줄리아 세례식

4월 23일 “줄리아”(오른쪽에서 5번째 중앙)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고교를 졸업하고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설립 23주년 감사예배

3월 25일 23주년 교회 생일에 그동안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임마누엘교회 양원모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기도부탁

△현지교회들이 건강하게 서로 깊은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도록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각자 은사와 직업으로 현지 차세대 어린이들을 양육하는데 사명감을 갖도록 △현지교회들을 이끌어갈 교회 지도자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선교사들의 건강을 위해, 자녀들의 장래 진로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도록 △차량구입을 위해 △노시영 선교사 드림 nohsiyoung@hanmail.net



13면에서 계속) 맺음 말 중국 교회가 놀라게 성장하고 선교의 모멘텀에 서 있는 때이다. 이 중요한 시기에 한국 교회는 동반자의 의식을 갖고 함께 실크로드를 따라 진군하겠다는 중국교회에 긍정적인 반응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중국에 대해 보인 선교의 열정이 식지 않고 더 높은 차원의 동역을 위해 나간다면 놀라운 일이 눈앞에 나타날 것이다. '백 투 예루살렘인가? 땅 끝 선교

교회 리더 1일 수련회

5월 1일 세 장로교회들의 교회 일꾼들이 임마누엘교회(양원모 목사는 선교사)에 함께 모여 “전도” “교육” “예배” “공동체” 라는 주제로 강의를 듣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리오에 사는 ERBENI 여자 선교사가 리오시 열악한 지역에서 어린이 선교에 대해 소개하며 참석한 자들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또”수양관 영적 수련회

인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 복음의 서진화가 세계선교의 큰 물줄기임에는 틀림없지만 이것만이 절대 가치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성경은 말하기를 복음이 편만히 선포될 때 주께서 재림하신다고 말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기 위해서는 한 길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동서남북 진이 되어야 사망으로 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의 미완성 과업을 위해 서로 세워주고 힘을 보태야 한다. 그 시발점은 통일성을 유지하되 또한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 누구도 성령님의 윤행을 폄하하거나 가로 막을

권리는 없다. 우리는 이단이 아닌 이상 교회와 단체와 국가와 민족을 초월해 연합해야 한다. 구실이 열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 [편집자주: 본지는 저자의 논지인 “문제는 한국을 비롯한 밖에서 결가지처럼 여타 단체들이 B.T.J. 구호를 도용하고 내용을 변조하며 선동적으로 사람을 동원함으로 인하여 문제가 야기된 것이다”에 동의하면서 '백 투 예루살렘'에 대해서 조심스런 시각을 갖고 있음을 밝힌다.] jrsong007@hanmail.net

선교지 소식

멕시코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다양한 지형은 가진 멕시코는 “매혹의 땅”이라 불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금번 뉴욕 실버미션(회장 김재열 목사)에서 비전 트립으로 찾은 곳은 멕시코 Morelos 주 예카(Yeca Pixtla)라는 곳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실버미션에서 파송한 김경봉 선교사(78)가 사역하고 있는 곳으로 37명의 단원들이 의료 한방 미용 안경 사진 VBS(어린이) 사역으로 10주 동안 훈련받은 선교사들이 5박6일간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사역팀은 노령(최고83.39년생 평균나이 67, 75-6세 전제 나이 2507년)의 많은 분들이 무더운 건기의 날씨에 고산 해발 3,500-4,000미터 지역에서 사역하느라 힘이 들 것이라 생각도 있었으나 은혜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총 3,229명을 케어하게 되었는데 출발할 때 의사를 섭외하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에 출발을 하였지만 현지인 의사 3명(내과 2, 치과1)이 함께 사역에 동참해 주셔서 사역을 은혜스럽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현지에 교회들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즉석에서 헌금(3천3백50달러)을 해서 4곳의 교회를 도왔으며 우기가 시작되는데 돈이 없어 지붕을 울리지 못한 교회, 태풍 때 교회가 무너져 함석으로 엮어 매고 예배드리는 교회 등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시는 교회들을 세우는데 일조했다는 생각에 모든 단원들이 하나같이 기쁨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뉴욕실버미션 팀은 물품지원이나 의료 서비스지원도 중요하지만 현지 선교사들의 영성회복에 더욱 세심하게 기



도하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역지에 흔자 떨어져 있다가 보니 예배생활이 원활치 못하고 기도도 잘 안 된다는 선교사님들이 새 힘을 얻는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25기부터 실버는 8월 28일 수업할 예정이며 10주간 교육 후 과테말라로 갈 예정이며 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실버 선교사들의 사역

을 필요로 하는 선교사님들은 연락을 주시면 심사 후 사역을 도울 수 있습니다.

▲뉴욕실버미션 훈련원장 김경열 목사(917-963-9356)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2017 상반기 세미나 일정

날짜	지역	장소	이름	전화번호
2/6-7	LA	오렌지카운티	김영대 목사	714-392-9576
2/9-10	LA	오렌지카운티	윤건상 목사	949-705-7879
4/20-21	충북	평화교회	신형수 목사	010-4004-7004
4/24-25	강원도	영월교회	남상욱 목사	010-3422-5556
4/27-28	전남	전남지역	유동희 목사	010-9770-0110
5/1-2	창원	큰빛교회	강석규 목사	010-8706-9183
5/9-10	부산	부영교회	정성영 목사	010-3001-9257
5/11-12	부산	주님의교회	김종문 목사	010-3074-7974
5/15-16	충북	충주교회	윤민식 목사	043-272-2721
5-18	서울	등대교회	박래면 목사	010-9090-8291
5/22-23	대구	햇불선교회	장명석 목사	010-8372-5063
5/25-26	대구	새생명교회	김하림 목사	010-8938-8512
5/30-31	양산	영광교회	김종명 목사	010-3022-0690



강사: 라흥채 목사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도서 주문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34)

7.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한인 기독교교육을 위한 비평적 사회학 이야기 (18) (Critical Sociological Involvement in Korean American Christian Education)

정신애 박사
(사카이트리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지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깨어지고 불의하고 불건전한 부분들 중에서 “물질만능주의(Mammonism)”와 “부정부패(Corruption)”, “인종차별(Racism/Racial Discrimination)”, “문화간 차별(Cultural discrimination)”, 그리고 “남녀차별 혹은 성차별(Gender discrimination/Sexism)”, 그리고 “동성애차별(Discrimination by sexual orientation)”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으며, 지난 번 이야기부터 그 마지막 이슈로서 “공교육 실패 (Failure in Public Education)”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는 일반 교육의 입장에서 논의 할 때, 학업능력의 하향평준화, 소위 학업력 (academic excellence)의 저하라는 심각한 문제를 표출하고 있기에 현재의 미국 교육이 실패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기독교 교육적으로 봤을

교의 형태를 띠었습니다. 이러한 학교들은 기독교 전통의 계승을 그 큰 목적으로 하면서도, 읽기, 쓰기, 수리 등의 기초적인 교육을 병행하였습니다. 또한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대학들의 경우도,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초 명문대학들인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등도 그 설립 초기에는 목회자 양성을 그 목표로 세워졌고 실제로 그러한 교육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실상, 그 시작은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었고, 이러한 초기의 모습대로 순적으로 발전하였다면, 어쩌면 오늘날처럼 학업력 저하 및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토대 구축에 실패 및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가 배제된 인본주의 교육으로 미국의 교육이 흘러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초창기 교육의 모습은 18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미국인들이 독립전쟁을 겪게 되고, 본격적인 자본주의의 발현을 경험하고, 이로 인

이 있었을 뿐이었고, 나머지 교육의 영역들에서는 기독교 교육이 완전히 배제된 소위 “중립적” 공교육만이 객관적이고 옳은 교육적 노력이라고 여겨져 왔고, 그렇게 실행되어온 것입니다.

위와 같은 미국 교육의 역사적 기술을 통해 무엇이 오늘날의 교육의 문제들을 -이 사회의 깨어짐과 부정의함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을- 가져오게 되었는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가늠해 보자면, 그것은 바로, 주일학교 운동에도 불구하고 사회전반의 교육에 대한 기독교 및 교회적 영향력의 쇠퇴로 인한 “기독교 색채를 배제한 공립학교들의 등장과 공교육제도의 확립”이라는 부분일 것입니다. 사실 한 마디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는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색채를 배제한 공립학교의 등장과 공교육제도의 확립”이라는 말에는, 그 안에 그렇게 되기까지의 그 시

미국기독교교육의 실패원인: 기독교 색채 배제한 공립학교 등장과 공교육제도 확립 주일학교운동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존 듀이 철학적 교육이론이 인본주의 교육 바탕 이뤄

때는 모든 지적 영역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편향된 인본주의적 철학을 중심으로 교육함으로써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대안적이며 거시적 안목을 키워주지 못했기에 실패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미국의 교육이 어떻게 이와 같은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간략하게 미국 교육의 역사를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미국의 교육이 학업력 저하 및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토대 구축 실패라는 현재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가 배제된 인본주의 교육으로 치닫게 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교육의 흐름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어디에서 잘못 되었는지 짚어낼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통찰과 실마리도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교육의 시작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세운 사람들, 잘 아시는 대로 “종교적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이민을 개신교도(청교도)로부터였습니다. 그들의 이민 목적이 종교적인 자유이었던 만큼, 사실 초창기 그들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기독교를 수호하고, 계승하고, 이를 통해 더욱 발전시키는 부분이었었습니다. 이에 미국 건국 초창기의 교육의 모습은 다분히 교회 중심이었으며, 원시적이긴 하지만 기독교 학

해 사회적 변화를 겪게 되면서, 아주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중 가장 큰 것은 국가적 차원의 공적 교육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와 같은 기독교 색채를 배제한 공립학교들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대학들도 목회자 양성을 위한 기독교 교육 중심에서 점점 그 학문적 범위를 넓혀 나가기 되었습니다. 교육의 주류가 기독교적인 것에서 기독교적인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점차 변화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이와는 반대되는 모습이었었습니다. 19세기에 이르러서 영국에서 시작된 주일학교 운동의 영향을 받은 미국형 주일학교 운동이 미국 교육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시대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빈민들은 늘어나고 그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교회 주도로 그들에게 읽기, 쓰기, 수리 등의 기초적인 교육과 함께 기본적인 신앙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일학교 운동은 교회적으로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 오늘날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적으로 확대되지는 못하였습니다. 대신 인본주의 교육철학의 발전과 민주주의 사상 기저에 의거, 교육의 대중화에 대한 목소리가 강화되면서 점차 특히 20세기에 이르러서는 미국의 공교육제도는 더욱 더 공고히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는 교회 안에서만 유의미한 자리매김

대의 교육 철학적 역동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교육 철학적 역동이 지금의 미국 교육의 문제들을 가져왔으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조속히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급박한 필요를 느끼게 하는 지점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해당 교육 철학적 역동의 중심에는 존 듀이(John Dewey)의 인본주의적 교육철학인 실용주의 교육철학(Pragmatism)이 있습니다. 물론 존 듀이는 위대한 학자요, 교육 철학자이며, 그의 교육 철학이 특히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전세계적으로 많은 긍정적인 교육적 공헌을 했으며, 학문적으로도 교육 이론적 담론을 진일보시켰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교육철학이 “기독교 색채를 배제한 공립학교의 등장과 공교육제도의 확립”을 가져온 교육철학적 역동의 배경이 되었다는 점 또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에 다음 이야기에서는 존 듀이의 교육철학 등장 배경 및 이에 대한 설명과 존 듀이 이후의 미국 교육계의 철학적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실패한 미국 교육의 문제에 대해 우리 한인 기독교 교육이 어떠한 대안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sinaichung@yahoo.com

매일가정예배

허운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삼하13:30-33)

다윗왕의 가정에 어려운 시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큰 아들 압논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범하고 나니가 다말은 비참하게 망가진 채로 처량한 인생을 살았고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2년 동안 버리고 버리다가 결국 압논을 죽여 버립니다. 계속해서 못된 일만 저지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는 정확한 소식이 아니

면 절대로 함부로 임박에 내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압살롬이 압논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은 이것을 더 부풀려서 압살롬이 다윗왕의 모든 아들을 다 죽였다고 소문을 전한 것입니다. 혹시나 이 말을 잘못 전해서 상대방이 실족하면 모든 책임은 말하는 사람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늘 입이 무거워야 합니다.

화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삼하13:24-39)

본문에서 이 가정의 비극을 보면서 부모는 자녀를 철저히 신앙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자녀들을 인간적 정으로 키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도 다윗왕은 큰 아들 압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했는데도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압논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대성통곡을 했지만 그리고 나서 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외할아버지에게 도망가서 3년을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미 죽인 거 어떻게 하겠는가? 그냥 잊어버리자! 대단히 좋은 생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철저한 회개가 없이 그냥 덮어두면 반드시 그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것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삼하13:39-14:3)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을 범한 압논을 죽이는 사건으로 다윗은 대성통곡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세월이 지나면서 오히려 압살롬에 대한 연민의 정이 커져서 날마다 아들 압살롬 때문에 슬퍼하고 멀리 도망가 있는 아들을 돌아오게 하지 못하는 것을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요압과 슬기로운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합작으로 온 나라가 고통 속에 빠지게 하는 사건이 생

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들이 불쌍할지라도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먼저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나라의 일꾼은 혈육의 정을 초월해 진정한 신실한 한 사람 한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삼하14:4-16)

다윗의 연약한 모습을 옆에서 요압이 보고 드고아에 있는 슬기 있는 여인을 다윗에게 보내서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잘못된 동기에서 시작된 지혜는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만 넘어가 버렸습니다. 지난 날 나단 선지자의 비유와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삼하12:1-6). 그 비유는 다윗의 양심에 가책을 느끼게 해 회개케 함으로 다윗을 살

려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유는 진리를 흐리게 하고 다윗의 감정을 격동시켜서 잘못된 결정을 하게 합니다. 죄의 샅은 사함입니다. 잘못된 것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잘못을 회개함으로써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은 덮어두고 다른 잔인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 그 죄악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 가서 소년 압살롬을 데려오라(삼하14:17-24)

본문에서 요압이 행동 과정 속에서 귀중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성도는 아부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슬기 있는 여인과 요압의 특징은 다윗에게 철저히 아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을 선악을 분간하는 하나님의 천사라며 치켜세웁니다. 그리고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을 데려오라는 명령을 내리니까 “내가 다윗 왕께 은혜를 입은 줄 이제 알겠다”고 하면서 얼마나 아부하는지 모

릅니다.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혈육의 정 때문에 끌려 다녔습니다. 그 때 정직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 옆에는 아부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을 사실 이상으로 높이 평가하고 아부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토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삼하14:25-29)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압살롬의 외모는 너무나도 완벽한 외모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아름답고 발바닥에서 머리끝에까지 흠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살펴볼 것은 이러한 아름다움 외모를 가지고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악한 일에 사용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26절).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하나님

의 은혜입니다. 내가 좋은 점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15장부터 압살롬의 교만이 서서히 나타나는데 18장에 가면 압살롬은 그렇게 자랑하던 자기 머리카락 때문에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성도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감사만이 넘칠 뿐입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p>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www.kumr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p>	<p>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p>	<p>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Tel. 39-06-827-3585, 39-348-339-1726</p>	<p>새이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 (031)896-6077</p>	<p>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Tel. (02)2-2646-3181~3, (02)2-2646-3184</p>	<p>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www.seongsil.or.kr Tel. (82)2-998-9998, Fax. 3927-1008</p>	<p>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p>
<p>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p>	<p>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Tel. (02)732-2341~3, 팩스: (02)389-2235</p>	<p>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p>	<p>신길교회 담임목사: 이기용 Tel. (82)2-842-1968, 팩스: (011)82-2-842-1968</p>	<p>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결 Tel. (02)418-0481, Fax: (02)422-0751</p>	<p>신촌교회 담임목사: 박노훈 Tel. (82)2-3142-6080, Fax. (82)2-336-4188</p>	<p>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Tel. (82)2-926-4508, Fax. 3927-1008</p>
<p>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p>	<p>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Tel. (82)2-888-4813, 331-284-7204</p>	<p>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신일권 Tel. (02)842-6881, Fax. (02)842-6882</p>	<p>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Tel. (82)32-527-1009</p>	<p>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p>	<p>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p>	<p>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Tel. (82)2-926-4508, Fax. 3927-1008</p>

인/터/뷰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신임 총회장 유재일 목사(알래스카 열린문교회 담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편집자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제 41회 정기총회가 “관계를 회복하라”(빌4:4-7) 라는 주제로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알래스카에서 열려 총회장으로 유재일 목사(열린문교회 담임)를 추대했다. 회장 유재일 목사는 이메일로 한 지면 인터뷰를 통해 향후 1년 동안 이끌어갈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에 대한 비전과 계획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새 총회장을 맡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총회에 2017년 후반과 2018년 복음의 굳센 행보를 기대한다.

-총회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을 말씀하신다면?

본 교단은 1978년 2월 8일 한국교단의 세속화 즉 교권주의, 인본주의, 몰락주의에 항거하여 배신자의 소리를 들으며 창립되어 올해로 41년이 되는 해입니다. 더구나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해이지요. 이러한 뜻 깊은 해에 지구 북극 알래스카(ALASKA)에서 총회를 개최하게 되었기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먼 곳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총대님들이 참석해 주시고 은혜가운데 총회를 진행할 수 있었음에 더욱 감사드리며 올 한해 총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신임 총회장으로써 1년 동안 총회를 이끌어 나갈 계획과 비전

은? 제가 1년 동안 총회장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두 가지 정도에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첫째로 우리교단이 지난 몇 회

기 동안 받은 이탈의 후유증과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상처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므로 평강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평화로운 총회를 이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 일은 혼자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협



세속화 물결 속 오직 은혜 믿음 성경, 종교개혁 기치 높일 것
이탈의 후유증과 상처, 치유 회복...선거운동 없는 공천되도록
주인의 명령 따라 순종하며 일하는 ‘머슴목회’ 를 목회철학으로

려해 주셔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총회 소속 모든 교회와 목사님, 성도님들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특별히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00

년 동안 교회는 너무나 변질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인정할 것입니다. 이처럼 세속화 되어가는 교회가 다시 한 번 종교개혁의 가치를 높이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은혜 -Sola Gratia, 오직믿음-Sola Fide, 오직

성경-Sola Scriptura)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의 일환으로 본 교단은 지난 4월 종교개혁기념 컨퍼런스를 갖고 이를 기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자는 명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불법과 불순종을 청산하고 잘못된 관행을 제거하는 작업을 계속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권주의, 인본주의, 몰락주의가 다시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선거운동 없는 공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올 한 해 우리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개혁되기를 소원하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평소에 갖고 있는 목회철학과 섬기시는 교회에 대해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며 일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여러 가지 사역과 모습 속에서 종으로 오신 주님을 만났기에 저 역시 주님의 종으로, 머슴처럼 주님을 뜻을 따르며 순종함으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묵묵히 종의 길을 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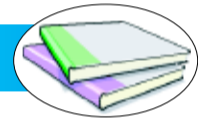
우리 열린문교회는 1981년 8월 라성 빌라델비아교회에서 파송된 정진구 목사님을 모시고 장년 12명 어린이 2명이 모여 설립 예배를 드림으로 태동되었지요. 저는 3대 목사로 1994년에 청빙을 받아 사역을 시작하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 교우들과 함께 주님의 종의 도를 실천하는 △왕 되신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마6:33) △천국일꾼을 키우는 교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마5-7장) △주님의 지상 명령대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교회(행1:8), △다민족교회이상을 실현하는 교회(마 28:18-20)가 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유재일 목사는 총회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72회) 서울 총현교회 부목사로 사역했다. 또 칠레 선교사로 11년을 사역했으며, 라성 빌라델비아교회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앵글리칸 열린문교회에서 청빙을 받아 23년간 담임목회 사역을 하고 있다. 가족으로는 유성욱 사모와 두 아들과 손주, 그리고 모친 김천옥 권사가 있다. (이성자 기자)

“하나님 마음 듣기”

지은이 이희영 사모

책 소개



“바실레이아” (하나님나라)

지은이 최데보라 선교사

“말씀만이 사람을 회복시킨다”의 의심과 불안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을 살리는 큐티 칼럼 “하나님 마음 듣기”가 최근 출간됐다.

본지 “영성칼럼” 필자인 지자 이희영 사모는 본지에서 ‘내 마음에 고정 채널이 있는가?’ ‘날마다 하나님 마음에 주파수를 맞추라!’라며 도전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험악한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하늘의 만나만을 의지해 살았듯이, 저자도 47년 간 하나님의 말씀을 구구절절 사랑의 만나로 묵상하며 살았다. 그러한 시간을 통해 기름 부으신 말씀만이 사람을 회복한다는 것을 체험한 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방법을 돕고자 영성 큐티 칼럼을 엮었다. 이 책은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기본 뼈대로 삼고 있으며, 성경 인물들이 만나는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살펴봄, 하나님 마음에 주파수를 맞추는 방법을 명쾌하게 들려준다.

본서는 여섯 챕터와 부록으로 돼 있다. 1장 하나님의 마음...생명과, 2장 사람의 마음...생명과, 3장 영혼을 죽이는 죄의 악성 바이러스, 5장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 6장 예수님 형상으로 회복된 마음의 주제 아래 총 44개의 소제목 글이 실려 있다.

“말씀만이 사람을 회복시킨다”...큐티 칼럼집

부록은 1. 하나님 마음 듣기 가이드 2. 큐티 가이드 3. 인물 큐티 가이드 4. 지성소 큐티 가이드가 삽입돼 있다. 20대 초반, 허무주의에 빠져있던

저자는 자살 직전에 찾아온 친구의 전도로 예수의 사람이 됐고, 1976년 도미 후 이민교회 사모로 최전방 광야 지옥 훈련을 거친 뒤 제자 훈련, 큐티훈련, 상담 및 멘토링, 2세 영어목회, 사명자 및 지도자 훈련사역에 헌신해오고 있다. 또 행복 세미나, 사명자 세우기, 인물 묵상 큐티 세미나, 내면치유,

영성 세미나, ‘맑은영성의삶’ 인터넷 사명자 훈련방, 카카오톡 큐티 나눔방, ‘성령행진’ 말씀 선포 선교 등으로 세계의 지역교회를 순회하며 끈고한 심령을 세우고 있다. 저서로는 ‘맑은 영성의 삶’, ‘곤고한 심령이 살아나는 만져주심’(두란노)과 역서로 ‘교회 내 여성지도력’이 있다. 이메일: heenlee55@hanmail.net (유원정 기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사역하고 현재 창원의국인교회 선교목사로 섬기고 있는 최데보라 목사가 자신의 신앙 간증을 엮어 ‘바실레이아’(쿰란출판사 300쪽)를 출간했다.

최 선교사가 엄마의 태중에 있기 전, 최 전도사의 어머니의 출생일로 거슬러 올라가 오늘날까지의 시간 100년을 되돌아보며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진솔하게 풀어갔다.

해성경 속 에 만 계 신 하나 이 한 사람의 생애 속으로 걸어나오시는 모



흘러나온 ‘하늘가는 밝은 길이...’의 찬양소리, 믿지 않는 가족들의 비난 등 견딜 수 없는 고난들이 기록돼 있다.

그러나 저자의 인생에서 고난만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학교 교사에서 선교사로, 주의 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간증은 이 책을 읽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리라 생각된다. 본서에는 장로회신학대학교 명

한 사람의 생애 속으로 걸어나오시는 하나님 볼 수 있는 간증집

본서는 ‘나의 신앙배경’, ‘암흑에서 빛으로’,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시련과 역경을 딛고’, ‘첫 선교지, 인도네시아를 향하여’, ‘제 2의 선교지, 미국을 향하여’, ‘제 3의 선교지 한국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이슬람의 계략’, ‘하나님의 위로하심’, ‘한국의 현실과 한 국교회의 사명’으로 나누어 수록

습을 보게 했다. 본서에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최데보라 선교사. 그의 부친이 장로장립을 받은 지 2년이 되던 해 그의 가정의 일어난 시련과 고난은 처절하기만 하다. 저자의 오빠가 정신적으로 불안전하던 울케에 손에 죽임을 당하고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입에서 가늘게

예총장 서정은 박사와, 은혜 샘물교회 박은조 목사의 추천사가 기록돼 있다. 책 구입은 미주지역 각 기독교서점에서 할 수 있다. 저자 연락처: deborah0614@hanmail.net (이성자 기자)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450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1-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이미경 간사 1-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